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입체주의적 콜라주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규 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경희

입체주의적 콜라주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The study artmakeup apply a collage peculiarity of cubism
-centered on papier colle-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규 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경희

입체주의적 콜라주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The study artmakeup apply a collage peculiarity of cubism
-centered on papier coll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규 리

이규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입체주의적 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파피에 콜레 기법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이 규 리

현대 아트메이크업은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이 다양화·개방화되면서 현대인들의 미적표현 욕구 또한 무한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시도나 패션기법들의 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중 꼴라쥬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 소재와 기법의 사용으로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표현이 시도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조형 예술적 측면의 아트메이크업에 커다란 변혁과 전환을 주고 있다.

꼴라쥬는 초기 입체파 화가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파피에 콜레 기법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표현기법과 창작 활동으로 이어져 최근 아트메이크업에 접목되어 예술적 요소로 표현되고 있다. 파피에 콜레 기법은 종이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평면적인 회화를 3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리며, 한정된 표현재료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거듭나는 형태로 소재와 조형의지에 따라 폭넓은 표현을 전환시키는 기법이다. 따라서 고정관념에 익숙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서 아트메이크업과 유사점이 있으며, 이들을 서로 접목하여

조형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드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꼴라쥬의 정의 및 미술사조에 따른 꼴라쥬 기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중 입체주의와 꼴라쥬 기법인 파피에 콜레 기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꼴라쥬 소재의 특성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고, 입체주의적 꼴라쥬의 특성을 활용한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하여 독창적인 5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꼴라쥬는 사물의 고정관념에 벗어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아트메이크업에 접목시킴으로서 하나의 조형예술문화로 표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꼴라쥬 중에서 종이를 붙이는 의미인 파피에 콜레 기법은 화면의 현실적 회복의 한 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공간적 깊이감과 질감을 강조하여 평범한 디자인에 조형성을 창조하고 있다.

셋째, 파피에 콜레는 종이 조각들의 형태와 색채로 1차적 평면에서 잃어버린 입체감을 회복시켜주고 추상적인 세계를 넘어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아트와 메이크업이라는 단순한 미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소재를 통한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아티스트에게 창의성과 표현력을 부여함은 물론 작품능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연구를 통한 한계점으로는 파피에 콜레 기법 이외에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미술사조에 따른 다양한 꼴라쥬의 표현기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작품 제작에 활용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꼴라쥬의 표현기법과 재료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주관적 미감표현이라는 아트메이크업의 의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주요어】 아트메이크업, 꼴라쥬, 입체주의, 파피에 콜레, 조형예술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꼴라주의의 이론적 고찰	4
1. 꼴라주의	4
1) 꼴라주의의 정의	4
2) 미술사조에 따른 꼴라주의의 전개	5
(1) 입체주의의 전개	6
(2) 다다이즘의 전개	6
(3) 초현실주의의 전개	7
3) 꼴라주의의 표현적 특성	9
(1) 입체주의의 표현기법	9
(2) 다다이즘의 표현기법	10
(3)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	12
제 2 절 입체주의의 이론적 고찰	19
1. 입체주의	19
1) 입체주의의 정의와 기원	19
2) 시대별 흐름	20
(1) 전기 입체주의(1907~1910)	21
(2) 분석적 입체주의(1910~1912)	22
(3) 종합적 입체주의(1912~1916)	22
3) 입체주의적 꼴라주의의 표현기법	24

(1) 파피에 콜레(Papier Colles) 기법	24
(2) 입체주의 화가들에 의한 파피에 콜레 기법의 응용	25
(3) 현대에 나타난 파피에 콜레 기법의 응용사례	28
제 3 절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35
1. 아트메이크업	35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35
2.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	36
1) 형	36
2) 색채	37
3) 질감	38
3.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42
1) 환타지메이크업(Fantasic Make-up)	42
2)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43
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43
4.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47
1) 회화적 표현기법	47
2) 오브제 표현기법	47
3)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48
4)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49
5)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49
제 4 절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콜라쥬 소재 특성 분석	53
1. 아트메이크업과 콜라쥬	53
2. 아트메이크업에 응용된 콜라쥬의 소재 분석	53
1) 인조보석	54
2) 깃털	54
3) 금속	55
4) 클리터	55
5) 패브릭	56
6) 인조속눈썹	56

7) 종이	57
제 3 장 작품제작	64
제 1 절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64
1. 작품-1 VENUS	65
2. 작품-2 UTOPIA	68
3. 작품-3 도라 마르의 환생	72
4. 작품-4 주작(朱雀)	76
5. 작품-5 Cantata	80
제 4 장 결 론	84
【참고문헌】	86
ABSTRACT	92

【 표 목 차 】

[표 1] 꼴라쥬의 표현적 특성	16
[표 2] 입체주의 시대별 흐름	23



【 그림 목 차 】

<그림 1> 피카소, 기타 (1913)	17
<그림 2> 에른스트, 모자가 인간을 만든다 (1920)	17
<그림 3> 슈비터스, 메르츠410	17
<그림 4> 한나 회흐, 바이마르 맥주배불뚝이 문화 (1919)	17
<그림 5> 에른스트, 잎사귀의 버릇	18
<그림 6> 오스카 도밍게스, 데칼코마니 (1936)	18
<그림 7> 에른스트, 붉은 모델 (1935)	18
<그림 8> 슈비터스, 성좌 (1920)	18
<그림 9>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 (1907)	30
<그림 10> 브라크, 레스타크 풍경 (1908)	30
<그림 11> 피카소, 등나무가 있는 정물화 (1912)	30
<그림 12> 피카소, 마줄리 (1914)	30
<그림 13> 피카소, 세레의 풍경 (1913)	31
<그림 14> 피카소, 바이올린 (1912)	31
<그림 15> 피카소, 담뱃대, 유리잔, 낡은 술병 (1914)	31
<그림 16> 브라크, 기타를 든 남자 (1911)	31
<그림 17> 브라크, 과일과 기타 (1911)	32
<그림 18> 브라크, 포르투갈 사람 (1911)	32
<그림 19> 브라크, 둥근 탁자 (1929)	32
<그림 20> 의상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32
<그림 21> 의상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33
<그림 22> 공예품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33
<그림 23> 공예품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33
<그림 24> 메이크업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33
<그림 25> 메이크업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34
<그림 26> 점에 의한 표현기법	40
<그림 27> 선에 의한 표현기법	40

<그림 28> 면에 의한 표현기법	40
<그림 29> 색채에 의한 표현기법	40
<그림 30> 글로시한 질감 표현기법	41
<그림 31> 매트한 질감 표현기법	41
<그림 32> 펄을 이용한 질감 표현기법	41
<그림 33> 펄을 이용한 질감 표현기법	41
<그림 34> 꽃을 이용한 환타지메이크업	45
<그림 35> 속눈썹을 이용한 환타지메이크업	45
<그림 36> 동물표현 페이스페인팅	45
<그림 37> 시각적 페이스페인팅	45
<그림 38> 바디페인팅	46
<그림 39> 바디페인팅	46
<그림 40> 회화적 표현기법	50
<그림 41> 회화적 표현기법	50
<그림 42> 오브제 표현기법	50
<그림 43> 오브제 표현기법	50
<그림 44>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51
<그림 45>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51
<그림 46>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51
<그림 47>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51
<그림 48>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52
<그림 49>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52
<그림 50>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58
<그림 51>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58
<그림 52>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58
<그림 53>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58
<그림 54> 깃털을 이용한 메이크업	59
<그림 55> 깃털을 이용한 메이크업	59
<그림 56> 깃털을 이용한 메이크업	59

<그림 57> 금속을 이용한 메이크업	59
<그림 58> 금속을 이용한 메이크업	60
<그림 59>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60
<그림 60>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60
<그림 61>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60
<그림 62> 레이스를 이용한 메이크업	61
<그림 63> 레이스를 이용한 메이크업	61
<그림 64> 레이스를 이용한 메이크업	61
<그림 65>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61
<그림 66>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62
<그림 67>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62
<그림 68>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62
<그림 69> 종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62
<그림 70> 종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63



【 작 품 목 차 】

[작품 1] VENUS	66
[작품 2] UTOPIA	70
[작품 3] 도라 마르의 환생	74
[작품 4] 주작(朱雀)	78
[작품 5] Cantata	8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 있어 개인과 집단의 가치관이 다양화·개방화되면서 사회적 규제의 범위 축소 현상으로 과거와 다른 유연성이 있는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어느 국가든 하루면 이동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로 문화적 이질감은 더욱 해소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시대로서, 현대인들의 미적표현 욕구 또한 무한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메이크업에도 영향을 끼쳐 자신만의 개성을 찾으려는 진보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방식의 시도나 패션기법들의 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 또한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 소재와 기법의 사용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표현이 보편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즉, 특정한 경계와 가치체계는 서로 연관성과 공존의 원리를 지니며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 창조적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조형 예술적 측면의 아트메이크업에 커다란 변혁과 전환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미술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이어져 조형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 중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디자인 영역을 넘어선 예술적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

콜라주란 초기 입체파 화가들이 기존의 붓과 물감을 대체하여 그 전까지 미술제작에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화면에 재질감을 나타내고자 했던 기법으로 파피에 콜레에서 부터 출발한 기법이다.

파피에 콜레 기법에는 종이를 이용하여 붙임으로서 평면적인 회화를 3차원의 세계로 끌어올리며 한정된 표현재료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그림의 일부나 잡지, 신문 같은 종이류 등의 다양한 재료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거듭나는 형태로 소재와 조형의지에 따라 폭넓은 표현

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생성시켰다. 또한,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새로운 조형개념으로 인정받아 현대 메이크업과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에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콜라주의 사용은 아트메이크업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아트메이크업과 파피에 콜레 기법은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물과 대상물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함으로써 고정관념에 익숙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유사점이 있으며, 이들을 서로 접목하여 조형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로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콜라주나 오브제 표현분류에 따른 작품을 제작하여 콜라주 기법의 다양성을 연구하였고, 강현신(2011)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 피카소를 중심으로」는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이론적 정립과 피카소 작품 중 콜라주 요소가 들어간 표현기법을 통해 아트메이크업에 드러난 콜라주적 요소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오정은(2006)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콜라주 형태 및 표현특성」에서는 현대 메이크업의 특성과 콜라주 특성을 아트메이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입체성, 조형성 등을 연구·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콜라주의 이론적 정립을 통한 작품 제시 및 다양한 콜라주를 사용한 메이크업의 시각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술사조에 따른 콜라주 기법 변화와 종이와 가진 조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입체주의의 파피에 콜레 기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콜라주 기법의 발단이 되었던 입체주의와 그의 주된 콜라주 기법인 파피에 콜레 기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파피에 콜레의 매체나 구성요소의 분석을 통해 독특한 표현과 시각적 효과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조형적 형태의 미를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접목시키고자 한다. 이는 작가의 의도에 의한 이미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작품으로 파피에 콜레의 무한한 상상력을 아트메이크업에 접목하여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꼴라쥬 기법의 발단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꼴라쥬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로, 입체주의적 꼴라쥬의 특성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성 중에서 종이와 가진 조형적 가치 위주의 파피에 콜레 기법을 현대적 감각의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적용하여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총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꼴라쥬의 정의 및 미술사조에 따른 꼴라쥬 기법의 변화를 연구하고, 그 중 입체주의와 그의 주된 꼴라쥬 기법인 파피에 콜레 기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아트메이크업의 고찰을 통해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꼴라쥬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앞선 연구를 토대로 입체주의적 꼴라쥬의 특성을 응용한 파피에 콜레 기법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을 통하여 아트메이크업의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4장에서는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콜라주의 이론적 고찰

1. 콜라주

1) 콜라주의 정의

콜라주(Collage)란 프랑스어 동사 'Coller'(폴로 붙이다)에서 유래된 단어로 '폴칠'이나 '폴칠 바르기'의 의미로 전용되어 발전되었다. 이는 2차원의 화면에 이질재료인 종이, 인쇄물, 직물, 모래, 금속, 나무 등의 일부를 붙여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나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되는 회화를 의미한다.¹⁾

콜라주 기법은 작품 속에 실재의 대상을 첨가하고 합성함으로 구상적인 면을 유지하고 실재의 대상물인 오브제 뿐 아니라, 화면 자체에 다양한 형식을 첨가하여 그 범위를 넓혀 의미를 확장시킨 것이다. 화면 위에 착시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전통예술이 추구하던 환상주의적인 재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표현하는 예술로 자리매김 하였다. 작품이나 대상 또는 이미 존재하는 주체인 메세지에서 다양한 요소를 돌출해 냄으로서 여러 가지 성격이 가지는 부조화를 분명하게 하는 독창적인 전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 가지 요소들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종합하는 예술이라 볼 수 있다. 즉, 그림 등을 오려내거나 도려내어 새롭게 붙이는 것으로 그 의미와 뜻이 데꾸파주(Découpage)²⁾, 앓쌍블라주(Assemblage)³⁾, 몽타주(Montage)⁴⁾와 같으며,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료에 손을 대고 뜯어 맞추고 혼성으로 인하여 새롭게 충돌을 일으켜 창조하는 것이다.⁵⁾

이처럼 콜라주는 예술적인 표현과 일상세계의 경험 사이에서 새롭고 독

1) 현대미술용어사전(1981), 『계간미술편』, 서울 : 중앙일보사, p.173.

2) 종이를 오려 붙여서 가구나 작은 소품 등을 장식하는 기법이다.

3) '집합', '조립' 등의 뜻으로 평면적인 타블로 회화에 3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이다.

4) 영화나 사진 편집 구성의 한 방법으로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일이다.

5)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서울 : 다할미디어, pp.219~220.

창적인 상호작용을 부여함으로써 예술과 생활이 상호 경험이 되게끔 근접시키는데 있어 예상치 못한 결과와 의미를 산출해 내는 것이다. 또한, 꼴라주는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를 통해 창조성과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공간적 요소의 장식과 더불어 예술의 다양한 영역적 혼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확장 또한 드러나 있다.⁶⁾

꼴라주는 중세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공예, 대중예술 작가들의 장식적인 공예품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창조적 예술가들에 의해 미술사적 가치를 지니게 되어 조형표현 수단이 된 것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이다. 20세기 초엽에 현대회화의 대표적인 표현방법으로 전통적인 시각예술사에서 혁신적이었다. 창의적 표현과 그리고 인간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르네상스 이후 서구의 회화예술 뿐 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원근법적인 투시, 그리고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와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 등에 의해 환상주의적인 착시에 대한 하나의 예술적 해결책으로 소개되었다.⁷⁾ 이같이 역사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사상, 사조에 의해 보다 다양한 방법과 영역으로 변화를 거듭하였다.

2) 미술사조에 따른 꼴라주의 전개

회화에 있어서 혁명적 기초가 된 꼴라주 기법은 새로운 사조와 방법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고 꼴라주에서 파생되어 나온 각각의 기법들이 독립성을 갖게 되면서 그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마치 새로운 방법과 생각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⁸⁾ 꼴라주 기법이 시대를 거쳐 다양한 미술사조에 따라 전개되어 온 꼴라주의 과정을 김자경(2001) 「초현실주의의 꼴라주 기법에 관한 연구」와 김미희(2009) 「다다이즘에 나타난 꼴라주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입체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를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6) 천애경(2002), 「韓國 傳統紋樣에 나타난 造形性和 象徵性 研究 : 植物紋樣을 中心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7)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전개서, p.218.

8) 김은경(2001), 「해체주의적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꼴라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 입체주의의 전개

20세기 미술사에 야수주의가 끼친 영향력과는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입체주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래주의, 순수주의, 절대주의, 구성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등 거의 모든 예술언어의 모태라고 볼 수 있다. 입체주의의 표현기법에 나타내는 다양한 특별효과를 위해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또는 꼴라쥬에 관심을 가지고 온갖 재료들을 캔버스에 붙임으로서 특별재료인 신문지, 숫자, 사진, 그림은 현실적 모습보다는 독창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항상 새로운 표현기법에 대한 관심과 파편화된 평면들을 나란히, 또는 중첩되게 그림으로 입체적 공간을 표현함으로 캔버스 속에서 공간을 표현하는 면들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입체주의는 1900년대 유행하던 빛에 따라 사물의 채색된 표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인상주의의 광학적 사실주의에 반기를 들면서 원근의 무시와 공간의 파괴를 통한 화면의 평면화를 도입하였고, 화면 속에 현실적 물체를 붙여 나가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로 모든 물체를 원추, 원구, 원통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으며 주로 조형이론을 근거로 대상화면의 주제를 분석 해체하여 재구성하는 조형과정에서 생겨난 조각의 일부분을 직물이나 종이, 금속, 철사 등의 실물 조각들로 대체 표현하는 꼴라쥬 기법이라 볼 수 있다. 입체주의 기법을 통하여 꼴라쥬는 더욱 장식적이고 풍부한 현실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2) 다다이즘의 전개

다다이즘은 양식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술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문학과 음악 등의 다른 예술분야에서도 동시에 시작되며, 모든 예술장르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표현하는데 수단으로 삼았다. 이로서 다다는 총체적 예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다리스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기존 문화에 대한 철저한 부정, 더 나아가 합리주의적이고 이성적인 아카데미 미술에 대한 거부로 이들은 '우연의 원리'를 선택했다.⁹⁾

9) 오광수(1991), 『한국 현대 미술사』, 서울 : 열화당, pp.31~33.

다다이즘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우연의 원리'는 예술의 합리성과 논리성이 삶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연성을 표현해내지 못하며 예술과 삶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예술이 '우연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다운동의 시초인 쥘리히 다다는 유럽전역에서 부터 전쟁을 피해 중립국 스위스로 온 작가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쥘리히 다다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는 소음과 동시성, 그리고 우연성이었다. 음악에서의 소음, 문학에서의 동시성, 그리고 미술에서의 우연성은 각각 그 분야의 성질에 맞게 각색된 새로운 시도였다. 전쟁이 종반에 들어서면서 쥘리히 다다는 종말을 고하게 되고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과 피카비아(Francis Picabia, 1879-1953)가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뉴욕 다다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 뉴욕 다다는 쥘리히 다다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출현한 운동이지만 뒤샹의 활약으로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된다. 레디 메이드(Ready Made)¹⁰⁾나 반 미학사상이 그의 중요 특성이 되고 이런 활동은 뉴욕다다에 이어 나타난 미국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¹¹⁾

이러한 다다이즘에 나타난 폴라쥬는 무의식이나 기호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 작품 속에 예술과 삶 사이의 경계해체나 파괴를 통해 모순과 폭로, 불확실성 등의 시대적 사고를 화면에 드러냄으로서 비일상적인 병치의 모습을 표출 하였다. 그들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하면서 기성제품과 일상 용품을 작품의 표현수단으로 도입하고 전통적인 회화개념에서 탈피하였다.¹²⁾ 즉, 다다의 특징은 예술의 제멋대로의 표현에 있으며 도발적인 것, 파렴치한 행위들로 이어지는 우연성의 법칙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삶과는 분리된 채 예술 그 자체가 숭고의 가치를 가지고 신성시 되어왔던 종래의 예술 개념을 부정하고 예술을 현실에 종속시키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초현실주의의 전개

10) M. 뒤샹이 처음으로 창조한 미술개념으로 기성품의 미술작품을 의미한다.

11) Dyett, L(1983), 『Art to Wear』, American Craft, Nov, p.18.

12) 장선규(1985), 「폴라쥬의 전개와 그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제1차 세계대전종전 직후인 1919년에 탄생해 제2차 대전 발생 직후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꾸준히 파생되었다. 초현실주의의 이론적 기반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며 앙드레 브르통(Andre Breton, 1892~1966)은 프로이드 학설의 방법론이 인간의 정신을 고정관념, 존재적 가치체계, 일상성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과 선입관의 통제에 의하지 않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얻어지는 의식 세계의 표출이라는 브르통 이론의 순수한 심리적인 자동현상의 최초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의 본격적인 활동은 1924년 브르통에 의한 ‘초현실주의의 선언’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그들은 자동기술법을 통하여 비합리적, 비현실의 세계를 표현했으며 일상적 사물의 환치를 통하여 환상이나 꿈, 우연성 등 무의식 세계의 영역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다다의 뒤를 이어 전개된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작용이나 심미적, 윤리적 목적에 구애됨이 없이 순수한 자동적 활동이고 무의식의 탐구였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비합리의 세계, 또는 꿈의 세계를 순수한 상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것이 회화에 적용되면서 갖가지 새로운 수법으로 나타났다. 보통 초현실주의는 무의식과 오토마티즘¹³⁾에 관련된 방법성의 차이로 제1기와 제2기로 나눈다.

제1기는 직관적 시대, 꿈의 시대로 불리며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이 대표적인 화가로 오토마티즘의 순수한 회화적 표현인 풀라쥬와 프로타쥬 기법을 썼다. 제2기는 객관적 시대로 불리며, 잠재의식의 체계적 객관화라 할 수 있는 살바도르 달리의 편집광적 비판의 수법을 썼다.

이렇듯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제시해주었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고 표현 수단으로의 오토마티즘은 그 후의 미술, 풀라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⁴⁾ 이들은 사물을 낯선 장소로 이동시켜 결합시킴으로 인하여 새로운 별개의 느낌을 주어 연상이나 환각, 꿈, 상징과 같은 우연의 효과를 화면에 적극적으로 분출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표현기법의 정착과 더불어 더 나아가 미국의 표현주의 형성

13)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예술 운동에서 제창된 표현기법이다.

14) 오광수(1995), 『서양 근대 회화사』, 서울 : 일지사, p.103.

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3) 꼴라쥬의 표현적 특성

미술사조에 따라 나타난 꼴라쥬의 표현적 특성은 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라 예술가들의 표현수단에 적용, 다양한 시대적 발언을 내재한 상태로 여러 가지의 의미론과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거듭 발전하고 있다. 꼴라쥬는 입체주의시대에 출현하여 20세기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표현기법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노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종이를 화면에 부착하거나 다른 재료를 이용한 파피에 콜레 기법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이 후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표현기법들이 등장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화면이나 표현영역에 결합하여 창의적인 예술적 조형과정을 통해서 예술가의 의지와 시대적 사고를 대변하였다.

정보경(2010) 「초현실주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기법연구」, 정채영(2009) 「꼴라쥬 기법을 응용한 조형 도자 표현연구」를 바탕으로 입체주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표현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입체주의의 표현기법

입체주의는 주요 관점을 설정하지 않은 채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동시에 관찰하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도 입체주의만큼 서양회화의 원칙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였다. 이러한 입체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혁명적 방식이 꼴라쥬였다. 이 시기에는 그리려는 사물의 형태를 분석하고 수많은 파편으로 분할하여 화폭 위에 나열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물을 하나의 시점이 아닌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게 되어 ‘시각의 다원적 전개’를 표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사물의 형태가 전후좌우로 켜여 일상적인 눈으로 보는 형태의 흔적을 잃게 되었다.¹⁵⁾ 점차 모든 대상들은 파편화되고, 분석을 통해 잃어버린 형태감을 극복하는 단계로 넘어갔기에 재현적면과 추상적면 사이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맞추어야 했으며 꼴라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15) 김옥진, 박재원(2004), 『광주비엔날레도록』, 광주 : 광주광역시, p.10.

양상으로 파피에 콜레라는 새로운 형태를 생성하게 되었다. 파피에 콜레는 종이나 신문의 재료를 이용하여 대상의 해체와 대상 자체의 암시를 불러 일으키며 입체주의 미술사조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① 파피에 콜레(Papier Colle)

프랑스어로 'Coller'(폴로 붙이다)라는 의미로 종이 따위를 찢어 붙이는 기법으로 콜라주의 일종이다. 미술의 역사에서 초기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시도 되었고 현실의 사물을 그리던 수법을 1912년경 캔버스에 여러 가지 종이를 색감과 질감으로 붙여 미적 효과를 자아내는 기법으로 공간적 깊이감과 현실감을 부여 하는데 사용하였다. 종이 붙이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화폭에 이질적인 인쇄물을 붙여 넣거나 문자, 단어, 숫자 등이 프린트된 기호 등을 붙여서 표현한 회화를 말하기도 한다. <그림 1>은 1913년에 파피에 콜레의 객관적인 본성에 의해 제작된 피카소의 작품으로 종이를 이용하여 기타의 형태를 지우며 사물들의 전위를 나타내고 있다.

(2) 다다이즘의 표현 기법

다다 미술가들의 공통점은 모더니즘의 전통을 이어받아 새롭고도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며, 미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관념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허무를 바탕으로 한 다다이즘은 전통적 예술의 개념을 부정하고 시대상황에 따른 무의미의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불합리에 의한 허무적 사회상, 무관심을 대변하며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동시에 오브제들의 조합과 우연성의 효과 등을 통해 조형성 강조와 우연의 원리에 의한 모순과 이질적인 이미지 결합을 통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사회전반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벗어나 예술 외적인 영역의 소재 즉, 일상의 용품과 기성제품 등 물질감을 작품 안에 도입하였다. 물질감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 변화를 체험해 나가는 다다이즘은 미학의 콜라주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무의미한 개념의 파타가가(Fatagaga) 콜라주, 메르츠(Merz) 콜라주, 베를린 다다이스트들이 주로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등 허무적이고 비이성적인 다다의 정신 밑에서 우연의 법칙을 이용하여 나름대로 독창적인 방법을 탄생시켰다.

① 파타가가(Fatagaga) 콜라주

쥘리히 다다의 ‘파타가가 콜라주(fatagagacollage)’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낱센스의 작품을 제작 한다는 뜻으로 다다의 허무적이고 불합리한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전통과 권위에 대한 전면부정, 그리고 모든 것을 무로 돌리려는 예술을 통한 지적 무정부주의(Anarchism)적인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다다의 우연성에 입각한 의식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잡지, 서적 표지, 사진 등을 절단하여 콜라주 방식으로 조합하였다. 1920년 에른스트는 <그림 2>처럼 사진판을 오려붙인 모자와 드로잉을 혼합하여 기하학적인 풍경 속에 담긴 모자를 연출한다. 이것은 사진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치적 파시즘에 대항하는 화가들에 의해 정치적 공격 수단이나 대항 의식수단으로 발달되었으며 의미 없는 낱센스와 우연한 효과의 연상작용으로 표현되어 잠재의식을 일깨우는 초현실주의를 낳는데 밑바탕이 되었다. 쥘리히 다다는 문학이 중심이었고 조형상으로는 아르프(Hans Arp, 1887~1966)나 장코의 콜라주에 입각한 그림 등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가위, 접착제, 회반죽, 마포, 종이, 모든 기법 그리고 콜라주나 몽타주까지 사용하여 표현하였다.¹⁶⁾

② 메르츠(Merz) 콜라주

메르의 그림이라 의미하고, 하노버의 유일한 다다이스트인 슈피터스(Kurt Schwitters, 1887~1948)가 이름 붙인 제작 기법으로 입체주의의 파괴에 콜레에서 응용하여 1차 대전 말기 일상의 갖가지 폐품을 콜라주 기법으로 시도하고 우연히 바르게 된 인쇄물 조각의 글을 따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의외성을 부각한 기법이다.¹⁷⁾ 슈피터스의 작품 <그림 3>처럼 주로 형태와 색, 그 밖의 도시 문명에 버려진 우표, 버스표, 오래된 도록 등의

16) Hans Richter, 김채현 역(1985), 『다다』, 서울 : 미진사, p.80.

17) 김지희(1995),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가톨릭상지대학 논문집』 Vol.25, p.12, 가톨릭상지대학

폐품을 이용하여 회화적으로 구성된 추상적 콜라주를 탄생시켰다. 이처럼 메르츠 콜라주는 조형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갖는 오브제 배치의 표현방법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정크아트(Jank Art)¹⁸⁾라는 이름으로 ‘미술에 적합하지 않은 물체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눈에 띄는 대상을 이용하는 미술경향이 된다.

③ 포토몽타주(PhotoMontage)

포토몽타주는 사진을 오려 그 부분을 재조립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으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진 이미지의 배합, 왜곡의 배열, 우연의 원리에 따른 이질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의미한다. 사실 포토몽타주의 영역은 조각난 사진들만 사용하는데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사진에 글씨, 색깔, 그림을 덧붙이는 것도 포함된다. 포토몽타주는 영화에서 필름을 편집할 때 사용하는 몽타주 수법에 대해서 보통 사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정적인 필름’이라 불려왔다.¹⁹⁾ 포토 몽타주의 가능성을 개발해 온 주요 예술가들에는 한나 회흐(Hannah Höch, 1889~1978), 리시츠키(El Lissitzky, 1890~1941),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 1895~1946),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 1891~1956), 바이어(Herbert Bayer, 1900~1985), 클루치스(Gustave Klutis, 1895~1944),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 레이(Man Ray, 1890~1977), 뒤샹(Marcel Duchamp, 1887~1969), 슈비터스(Kurt Schwitters, 1887~1948), 존슨(Ray Johnson, 1927~1955) 등이 있다. <그림 4>는 한나 회흐의 작품으로 볼베어링과 크랭크, 톱니바퀴와 유럽지도자들의 사진을 붙여 그 시대의 독자적인 정치와 기계 상징들을 부정적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

(3) 초현실주의의 표현 기법

초현실주의는 근본적으로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애썼으며 현실을

18) 일상생활에서 나온 부산물인 폐품(잡동사니)을 소재로 제작한 미술 작품으로 ‘Junk’는 폐품·쓰레기·잡동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활용한 미술작품을 정크아트라고 한다.

19) 이금란(1992), 「현대인의 소외현상에 관한 시각적 표현 : deformation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7.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시켜서 논리적이며 실재하는 현실,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려 했던 바 이것은 절대적 혹은 초월적인 현실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목적 안에서 서로 상이하면서도 모순되지 않은 수많은 주장과 기술을 상호 혼합시키면서, 이성과 의식적인 통제의 지배를 거부하려고 한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초현실주의 시인들은 자동기술적인 글을 썼고 달리(Salvador Domingo Felipe, 1904~1989), 미로(Joan Miro, 1893~1983),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 마송(Andre Masson, 1896~1987)과 같은 화가들은 우연을 통한 새로운 무의식의 세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초현실적 환상을 표현하려는 매체로 이질적 물체의 조합에 의한 환각이나 상징, 오브제, 연상의 재조립 등을 통해서 조형효과를 표현하는 프로타주(Frottage), 데칼코마니(Decalcomanie), 데페이즈망(Depaysement), 앓쌍블라주(Assemblage) 등 새로운 기법들을 더욱 확장시켰다.

① 프로타주(Frottage)

프로타주는 나무판이나 잎, 천 따위의 면이 울룩불룩 한 것 위에 종이를 대고, 연필 등으로 문지르면 피사물(被寫物)의 무늬가 배껴진다. 그때의 효과를 조형상에 응용한 수법으로 원뜻은 '마찰'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frotter'에서 나왔다. 작가의 의식이 작용하지 않은 차원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그 예기하지 않았던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에서는 데칼코마니나 타시즘 혹은 오토마티즘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²⁰⁾ 우연한 효과를 노리는 것 뿐만 아니고, 몇 가지 피사물을 의식적으로 짜맞추는 경우도 있고 혹은 거기에 나타난 무늬에서 힌트를 얻어 붓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 표현방법은 마찰을 통한 우연의 효과와 이미지의 연속적인 환각, 탁본에 의해 다루어졌다. 특히, 독일 태생 에른스트는 풀라쥬와 함께 이 수법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그림 5>는 종이위에 문질러 나뭇결의 질감을 살린 에른스트의 작품으로 보는 이에게 환상적인 우연의 신비감을 불러일으켰다.

20) Farrell-Beck, J. & Petsch, J. V.(1984), 『Colored Compare: Matisse & Picasso With Chanel and Vionnet』, H. E. R. J, vol.13, pp.206~214.

② 데칼코마니(Decalcomanie)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표현수단의 하나가 되었으며 많이 쓰이는 방법은 종이에 물감을 발라 두 겹으로 접는 것으로 전사기법을 통한 우연의 효과와 어긋남에 따른 환각 효과로 표현된다. 따라서 어떤 무늬를 특수한 종이에 찍어 얇은 막을 이루게 만든 뒤 다른 표면에 옮기는 것으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장식을 하거나 상표를 붙일 때 널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데칼코마니라는 용어는 20세기 중엽의 독특한 미술기법을 일컫는 말로서, 오스카 도밍게스(Oscar Dominguez, 1906~1957)의 <그림 6>처럼 불투명한 고무 수채화 물감을 종이에 바른 다음 캔버스나 다른 종이에 대고 눌렀다가 떼면 곱팡이나 해면을 연상시키는 색다른 무늬가 생기며, 독일 태생의 초현실주의 화가 에른스트의 그림에 이 기법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래는 도기나 유리, 기구 등의 그림불이기에 쓰인 수법으로 명반이나 알루미늄을 접착제에 섞어 종이 위에 칠한 것을 원화지로 하고 그 원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종이 자체를 도기나 유리에 눌러 붙여 그림만 상대 쪽에 전사하는 방법을 뜻하였다. 그러나 근대 미술에서는 그와 같이 공예에만 국한하지 않고 꼴라쥬나 프로타주와 함께 회화제작 자체에 한 가지 수단으로서 널리 사용한다.²¹⁾

③ 데페이즈망(Depaysement)

데페이즈망은 전치, 전위법 등으로 번역된다. 원래는 '나라나 정든 고장을 떠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초현실주의에서는 어떤 물체를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사물을 떼어내어 엉뚱한 다른 자리에 옮겨놓는 것,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한 세계를 출현시키는 것이라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즉 낯익은 물체라도 놓여 있는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 내어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여지게 되면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쇼크를 주게 된다.²²⁾ 이를테면 손목이 팔에서 떨어져 공중에 둥둥 떠 있거나 혹은 나무줄기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장면이

21)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2003), 『20세기의 미술』, 서울 : 예경, p.54.

22) 정진영(2002), 「빨기에 패션 디자인의 반미학적특성에 관한 연구 : 엔트워프 6인방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바로 그것이며, <그림 7>의 마그리트 작품처럼 인간의 벗은 발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신발이기도 한 양가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초현실주의자들은 경이와 신비에 가득찬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했는데, 초현실주의에 의하면 이런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콜라주나 오브제도 일종의 전위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들은 예술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다른 환경에 배치로 이질적 상황을 연출하고 전치, 심리적 충격효과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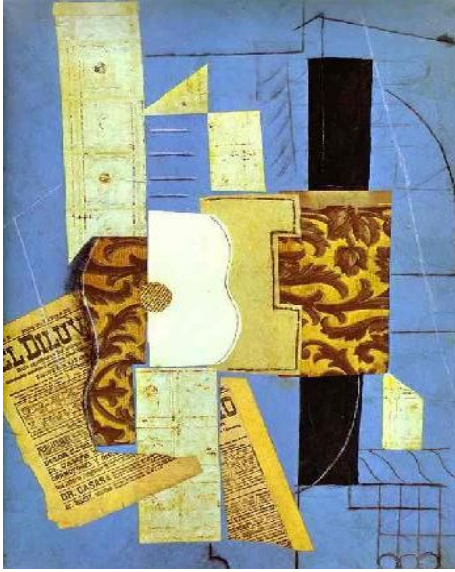
④ 앓쌍블라주(Assemblage)

‘집합’, ‘조립’ 등의 뜻으로 평면적인 타블로 회화에 3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나 폐품 따위를 조립해서 작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을 가리킨다. <그림 8>과 같이 길거리에서 모은 금속부품이나 나무, 밧줄 등을 난잡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종이 대신 오브제를 써서 만든 3차원의 콜라주나 콜라주 조각을 말하며 단편들의 집합, 재조립, 오브제에 의한 충격효과를 표현 할 수 있다. 앓쌍블라주란 말을 처음으로 쓴 것은 뒤뷔페(Dubuffet, 1901~1985)이지만 시도는 이미 브라크, 피카소, 피카비아, 뒤샹 등에 의해 20세기 초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미국의 평론가 윌리엄 사이츠(William Seitz)가 196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을 모아 ‘앓쌍블라주 미술전’을 기획하고 나서부터이다. 사이츠는 다다, 초현실주의 이래의 오브제의 현대적 호칭으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그에 의하면 앓쌍블라주는 ‘그리거나 조각된 것이 아니라 조립에 의한 것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물이거나 공업제품이지만, 전혀 미술을 의도하지 않고 만든 물건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문명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앓쌍블라주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폐품 문화의 반영으로 보여지기도 하였다.

[표 1]은 다양한 미술사조에 따라 발전, 변형되어 나타난 콜라주의 표현적 특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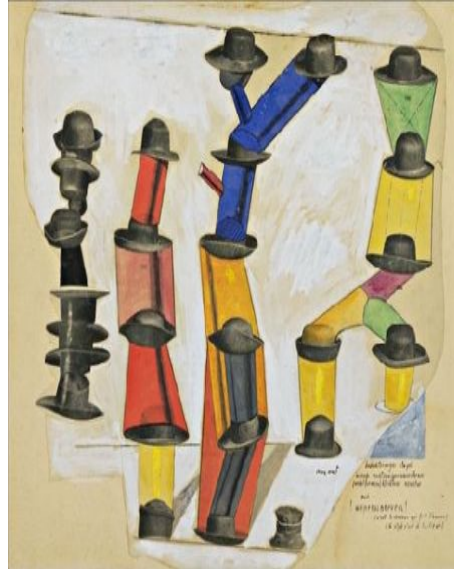
[표 1] 콜라주의 표현적 특성

사조	대표작가	콜라주 기법	표현방법	소재
입체주의	P.피카소 G.브라크	파피에 콜레 (Papier Colle)	공간적 깊이감, 색감과 질감 붙이기.	종이
다다	M.뒤샹 K.슈비터스 M.레이 F.피카비아 H.아르프 M.에른스트	파타가가 (Fatagaga) 콜라주	의미 없는 낱센스, 우연한 효과의 연상작용.	종이 조각
		메르츠(Merz) 콜라주	조형성 강조, 다양한 이미지를 갖는 오브제 배치	모든 재료
		포토몽타주 (PhotoMontage)	메시지 전달을 위한 사진 이미지의 배합, 왜곡의 배열, 우연의 원리에 따른 이질적인 이미지의 결합.	사진
초현실주의	M.에른스트 S.달리 J.미로 R.마그리트 A.마송	프로타주 (Frottage)	마찰을 통한 우연의 효과, 이미지의 연속적인 환각, 탁본.	종이, 연필, 목탄
		데칼코마니 (Decalcomanie)	전사기법을 통한 우연의 효과, 어긋남에 따른 환각 효과.	잉크, 물감, 수채화
		데페이즈망 (Depaysement)	다른 환경에 배치 이질적 상황 연출. 전치, 심리적 충격효과, 병치.	물체
		앗쌍블라주 (Assemblage)	단편들의 집합, 병치, 재조립. 오브제에 의한 충격 효과.	인공 소재



<그림 1> 피카소, 기타 (1913)

<http://blog.naver.com/elldesign?Redirect=Log&logNo=20036876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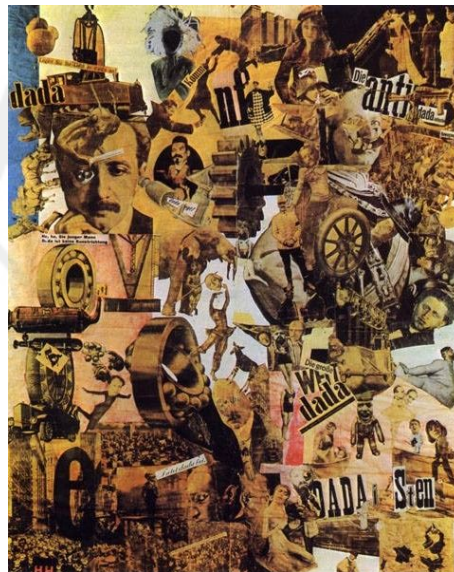
<그림 2> 에른스트, 모자가 인간을 만든다 (1920)

http://www.myb612.co.kr/shop/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56



<그림 3> 슈비티스, 메르츠410

<http://blog.naver.com/art422?Redirect=Log&logNo=701166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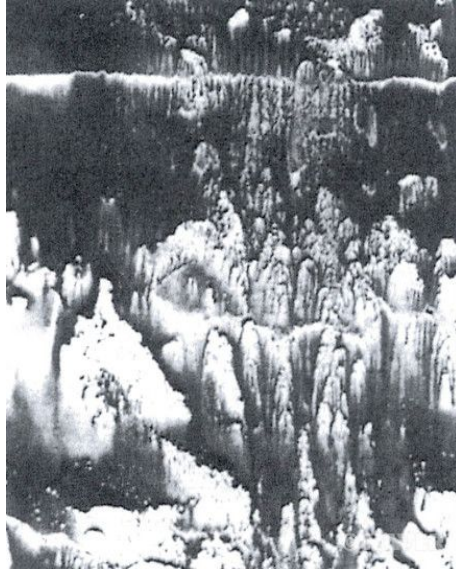
<그림 4> 한나 회흐, 바이마르 맥주배블
꼭이 문화 (1919)

http://cafe.naver.com/hanbatdesign.cafe?iframe_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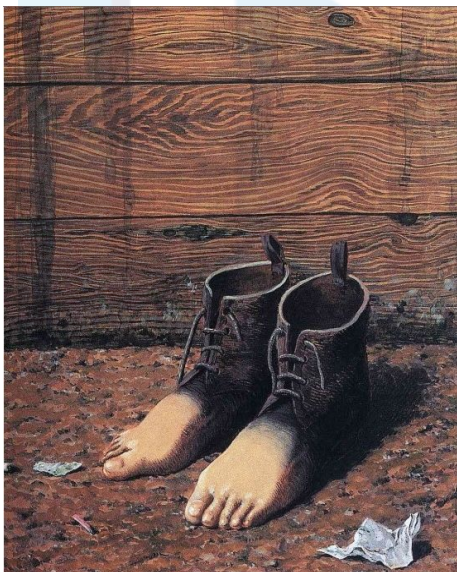
<그림 5> 에른스트, 앞사귀의 버릇

http://blog.naver.com/13610_?Redirect=Log&logNo=60132995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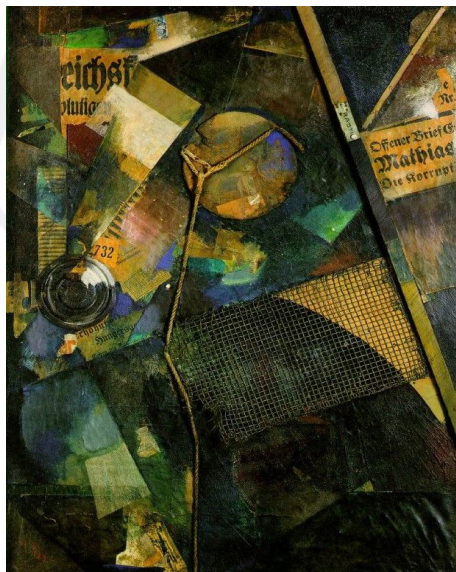
<그림 6> 오스카 도밍게스,
테칼코마니 (193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5829>



<그림 7> 에른스트, 붉은 모텔 (1935)

<http://blog.naver.com/arcadium?Redirect=Log&logNo=80142518416>



<그림 8> 슈비터스, 성좌 (1920)

<http://blog.naver.com/art422?Redirect=Log&logNo=70116620210>

제 2 절 입체주의의 이론적 고찰

1. 입체주의

1) 입체주의의 정의와 기원

입체주의는 20세기 초에 야수주의 운동과 전후에 일어난 미술운동으로 처음부터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 회화운동은 아니었다. 폴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의 그림에서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혁신적인 조형실험이 한 세대의 주도적 경향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입체주의 회화의 구체적인 형태는 1907년 피카소의 <그림 9> '아버지의 처녀들'에서 나타났으며 입체주의라는 명칭은 1908년 살롱 도톤에 출품된 브라크의 <그림 10> '레스타크 풍경'이라는 작품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²³⁾ 일반적으로 1908년을 입체파 탄생의 해로 피카소와 브라크는 다 같이 기하학적인 포름, 예를 들면 구체(球體)·삼각주(三角錐)·원통형(圓筒形)·입방체(立方體) 등을 응용하여 대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초기 입체파를 '세잔풍의 입체파'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²⁴⁾ 원래 입체파라는 명칭은 인상주의를 비롯한 근대의 혁신적인 운동이 일반대중에게는 인정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경멸적으로 사용된 비난의 말에서 유래되었다.

입체(立體:Cube)란 최초로 비평가인 R. 보셀(R. Barker Bausell)이 브라크의 작품에 붙인 이름이다. 보셀은 1909년에도 브라크의 작품에 대하여 몇 차례 '기묘한 입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입체파의 창시자인 피카소와 브라크가 세잔의 계열을 따른 새로운 화면구성을 의도하면서도 반드시 '기묘함'을 중시하지 않았던 사실은 다음의 두 사람의 문장으로도 알 수 있다.²⁵⁾ 입체주의 대표적 화가인 피카소는 "우리들이 입체적으로 사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달리 큐비즘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23) 박갑영(2004),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 두리미디어, p.190.

24) 오진경(2009), 「입체주의 조형양식을 통한 인체 도자 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25) 이춘섭(2006), 「입체주의 미술의 양식적 특성과 모더니즘 실내디자인과의 상관성, 1, 2」, 『백석대학교 진리논단』 Vol.13, p.11, 백석대학교

저 우리의 마음에 끌린 것을 표현한데 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으며, 브라크는 “내게 있어 큐비즘이란 내 습관에 적합한 입체적인 표현수단이며 이것을 이용하면 나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나의 큐비즘이라고 말해두기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입체주의의 표현기법에 나타내는 다양한 특별효과를 위해 파피에 콜레 또는 콜라주에 관심을 가지고 온갖 재료들을 캔버스에 붙임으로서 특별재료인 신문지, 숫자, 사진, 그림은 현실적 모습보다는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기법을 거부하고 자연의 모방으로 예술 이론을 통해 평면, 2차원 표면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입체주의적 작품들은 그림 형태의 조합과 합성을 강조하고 조각 및 평면을 유지하면서 도형이 크고 더 장식되며 컬러를 통해 작업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1907년 이미 피카소는 대작 ‘아비뇰의 처녀들’에서 강한 데생풍의 명암을 없앤 수법으로 흑인조각에 가까운 인물표현을 시도하였으며 피카소는 홀타 데 에브로의 에스파냐 풍경을, 브라크는 세잔과 같이 에스타크의 풍경을 발표하여 새로운 양식을 확립하였다. 두 화가의 작품을 보면 피카소에게는 예술가의 직관(直觀)이, 브라크에게는 명석한 논리(論理)가 현저하여 각기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가 대상의 도형화에 있어 현실과는 다른 회화공간을 쌓아올려 이 공간에서는 도형 그 자체의 연관이 유기적인 점, 두 사람의 색채가 갈색과 회색의 뉘앙스에 묶여 있는 점은 서로 공통된다.

2) 입체주의 시대별 흐름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하여 사물의 존재를 2차원적인 면의 분할로 재구성한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기 입체주의 시대에 세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선행연구 김소현(2005)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Braque) 繪畵의 特性에 관한 비교연구 : 입체주의(1907~1916)를 중심으로」를 참고하여 입체주의를 시대별로 세잔과 흑인조각에 영향을 받은 전기 입체주의, 지성에 대한 대상의 철저한 해체, 재구성한 분석적 입체주의, 파피에 콜레를 창안한 종합적 입체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전기 입체주의(1907~1910)

전기 입체주의는 초기 큐비즘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재현하는 대신 현실의 미술적 재창조를 향해 나아가던 시기이다. 세잔의 이론을 토대로 대상의 단순한 감각적 표현을 부정하고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하여 분해, 단순화한 다음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이후 원근과 명암 등 인류 미술의 근본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운동으로, 1908년 마티스가 브라크의 '레스타크 풍경'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 덩어리'라고 말한 것에 유래되었다. 대표적 화가로 피카소와 브라크가 있으며 그들은 그 당시 야수파의 작품이 너무 감각적 색채에만 치우쳐있지 않느냐는 고민에 빠지고 이어 미술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 결국 그에 대한 해답을 세잔의 형태론에서 찾게 되고, 세잔의 조형사고를 더욱 더 깊이 있게 파헤쳐나갔다. 입체파는 초기에 작품에 대하여 조롱 섞인 말을 들었으나 차츰 1910년경 기성 화단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입체파는 르네상스 이후 서양 회화의 전통인 원근법과 명암법, 그리고 다채로운 색채를 쓴 순간적인 현실 묘사를 지양하고, 야수파의 주정적(主情的)인 표현을 폐기한 대신 시점을 복수화하여 색채도 녹색과 황토색만으로 한정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하거나 사물의 모습을 전, 후 좌, 우를 생각하며 만들고 그에 따른 움직임이나 모습 등을 살려 최대한 그에 대한 시각이 새롭게 보이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기 입체주의에서 물체는 일단 일상 눈으로 보는 모습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닌 보는 각도에 따라 '물체 그 자체'의 모습이 변화됨으로서 탐구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전기 입체파의 가장 큰 업적은 르네상스 이래 이루어져 온 일들의 동시적 존재를 뒤집어서 형태의 동시 존재로 정착시킨데 있으며 측면, 정면 등의 사물의 여러 가지 시점을 통해 표현의 다원적(多元的)전개와 그로 인한 예술에 기울인 부분에도 다양하게 관계가 있다.²⁶⁾

26) 손정훈(1994),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대한 연구: 회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2) 분석적 입체주의(1910~1912)

분석적 입체주의의 시기에는 하나의 형태를 기존과 같이 한 방향에서만 바라보아서는 평면에 표현할 때 그 형태의 완전한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근법을 무시하고, 사방에서 그 사물을 바라본 후 이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으로 대상을 묘사하였다. 하지만 깨어진 형태를 하나로 조합하기는 힘들었고 특히, 사물의 정서적 느낌을 표현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져 급기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벽지나 나무무늬, 상표 등을 붙이는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즉, 평평한 재료를 이용하여 면과 면의 공간감을 살리는 구성적 형태를 취한 것이다.

1910년을 고비로 형체는 점차 세밀하게 결정화(結晶化)되고, 사물은 현저하게 해체되어 가는 분석적 입체파의 시대가 된다. 주제도 집이나 수목에서 한결름 나아가 과실·술병·컵 등의 정물적 모티프가 되고 다시 기타·만돌린·바이올린 등의 악기가 등장하여 분해된 그들 형체가 전후좌우로서 뒤섞여지므로 마치 거울면의 난반사(亂反射)를 방불케 하는 시각적인 확대를 획득하는 것이 되었다. 피카소가 몇 개의 초상에서 실험을 한 것도 이 시기이며, 후안 그리스(Juan Gris, 1887~1927)가 형체의 비구성(非構成)을 주장하여 분석적인 그림으로 불린 것도 이 시기이다. 원래 분석적 입체파에서는 물체는 일단 일상 눈으로 보는 포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분석적 입체파의 가장 큰 업적은 르네상스 이래 이루어져 온 일들의 동시적 존재를, 뒤집어서 형체의 동시 존재로서 정착시킨 데 있으며 인간의 얼굴만 하더라도 측면, 정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점에서 구성된 것이다.

(3) 종합적 입체주의(1912~1916)

1912년 입체파는 종합적 입체파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적 입체파가 자연히 화면구성에만 치중하여 물체가 지닌 리얼리티를 망각한 위기에서 비롯된 기법으로, 파피에 콜레가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즉물적(卽物的)으로 신문지나 벽지, 담배갑이나 트럼프 등을 화면에 붙여가는 방법이며 최초의 파피에 콜레는 1912년 브라크에 의하여 응

용되었다.²⁷⁾ 전기와는 달리 후기에는 분석에 의해 사실적 요소를 부활하고 획득된 추상적 구조와 실제의 형태를 결합하여 새로운 예술을 생성시켰다. 한마디로 종합적 입체주의는 하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 분석적 입체주의를 절충시킨 것이며 여기서 기존의 작은 분석적인 면들은 사라지고 보다 큰 기하학적 형태를 구축하게 되었다. 즉, 이전에 평면적 재료를 활용하여 입체적 양상을 표현하였다면 종합적 입체주의는 덩어리로 된 재료를 이용하여 깎거나 붙여서 양감을 살렸고 색면에 의한 화면구성을 표현하였다. 몽마르트르의 세탁선에 거주했던 피카소, 브라크 등이 이 운동의 중심이었고 그 밖에 몽파르나스에서 화면에 밝은 색채와 다이내믹한 울동을 도입했던 F. 레제(Joseph Fernand Henri Leger, 1881~1955)와 R. 들로네(Robert Delaunay, 1885~1941)가 있고, 화면의 구성 원리를 추구하여 추상예술의 길을 열었던 쿠프카와, 비용, 뒤상 등이 있다.²⁸⁾ 종합적 입체주의 이후 이들 입체주의는 미술, 디자인, 건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실제 신문, 벽지, 천 뿐 아니라 나무, 유리판, 아크릴, 돌, 벽돌, 캔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양면적 표현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색채를 중요시하였다.

[표 2]는 입체주의 시대별 흐름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 입체주의 시대별 흐름

입체주의 시대	내 용
전기 입체주의	초기큐비즘, 세잔과 흑인 조각의 영향, 기하학형으로 단순화
분석적 입체주의	원근법 무시, 평면적 표현. 시각의 복수성, 지성에 대한 대상의 철저한 해체·재구성, 제한된 색채
종합적 입체주의	사실적 요소 부활. 색채 중요, 색면에 의한 화면구성, 파피에 콜레 시도

27) 문지현(2007), 「입체주의 양식을 활용한 자화상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28) 진중권(2011), 전계서, p.105.

3) 입체주의적 콜라주의 표현기법

1911년경 입체파 시대에 대표적 화가인 피카소와 브라크는 화면 효과를 높이고 구체감을 강조하기 위하여 화면에 그림물감으로 그리는 대신에 신문지, 우표, 벽지 상표 등의 종이를 이용하여 실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의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개발해냈다. 파피에 콜레는 붙이는 재료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표현 가능성 발견으로 흥미 유발 및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색깔있는 재료들과 함께 최종작품을 장식하는데 깊이감과 밀도감을 형성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콜라주 소재를 같이 사용함으로써 화면의 구성능력을 신장시키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입체주의의 주된 콜라주 기법인 파피에 콜레와 이를 표현한 대표적 화가인 피카소와 브라크를 통하여 파피에 콜레의 표현기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현대에 나타난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한 입체적 작품인 의상, 공예품, 현대메이크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1) 파피에 콜레(Papier Colles) 기법

콜라주는 화면의 효과를 높이고 구체감(具體感)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에 물감으로 그리는 대신 신문지, 우표, 벽지, 상표 등의 실물을 붙여 화면을 구성한 것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방식이 파피에 콜레의 시초가 되었다. 즉 분화된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피에 콜레를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큐비즘 시대에 사용된 콜라주의 일종으로 종이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의 종이는 종이에 그려진 이미지와 가치보다는 주로 종이 자체의 질감과 색채의 가치로서 그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파피에 콜레는 화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파피에 콜레가 채용된 화면의 공간은 화가의 의도가 배제되어 있고 붓의 기교와는 무관한 ‘공간 이전의 넓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면서 동시에 부재하는’ 공간이다. 모든 관념과 규칙, 유사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공간, 그래서 투명한 공간이기도 하다. 입체주의자들은 파피에 콜레를 통해 평면적 회화에서 현실적 사물을 가미하여 화면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파피에 콜레의 개념은 큐비즘 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하

나의 이론적 내용으로서 정립되지만 역사 속에서의 그 흔적을 더듬어 보면 중세부터 19세기 말까지 공예, 대중예술, 아마추어 작가 또는 세계 각 지역의 생활 속에서부터 사용되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피에 콜레는 화면의 현실적 회복의 한 수단으로서 화면 속의 공간적 깊이감(Textralqualitierofoobject), 색채적 특징(Colourisitic), 그리고 물체의 질감(Talentofobject)을 강조해줌으로서 화면에서 잃어버린 구체인 이미지를 회복시킴과 아울러 더욱 풍부한 조형성을 창조하게 해준다. 즉, 다양한 종이 조각들의 형태와 색채, 표면의 질감, 다양한 위치의 구성에서 오는 평평하지만 불연속적인 공간들이 1차적 평면에서 잃어버린 구체적인 이미지를 회복시켜 더욱 풍부한 조형성을 창조한다. 이와 같은 파피에 콜레의 대상과 재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형이상학적, 추상적, 논리적인 이념의 세계를 넘어 참다운 리얼리티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2) 입체주의 화가들에 의한 파피에 콜레 기법의 응용

모든 물체는 원추, 원구, 원통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세잔의 조형이론을 근거로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파급된 입체주의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으로 유럽회화를 르네상스 이래 사실주의적 전통에서 해방시킨 회화혁명이라 볼 수 있다. 외부물질의 단편들이 입체주의 회화에 들어서면 일종의 변형이나 변질이 일어나는데 입체주의 화가들은 하나의 화면 내에 서로 다른 차원의 질감이나 이미지가 동시에 혼재되는 절충적 구조의 화면을 갖게 하는 콜라주 기법인 파피에 콜레 기법을 창안하여 미술 작품의 새로운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

①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

19세기 인상파 화가들이 행했던 것이 자신들의 인상, 시각과 시선을 그림에 개입시키며 사진과는 다른 회화만의 별도의 세계를 구축했다면 피카소는 평면의 화면에 입체감과 깊이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브라크를 만나 구체적인 결실들을 맺어가는데, 1907년

일찍이 “자연은 원통, 원추, 원구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던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을 계기로 현실화시켜 가장 단순한 표현으로 함축된 기하학적 그림을 경쟁적으로 그려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큐비즘 운동의 시작이었다.²⁹⁾

피카소의 혁명적 활동은 단순히 화풍의 변화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일상의 진부한 재료를 변용한 파피에 콜레의 작업을 통해 예술과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며 청색시대를 거쳐 1907년 ‘아비뇰의 아가씨들’에서 회화의 평면성이 강조된 새로운 시기, 즉 입체주의의 조형적 시도를 하였다.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조각수법에서 감화를 받은 영향 위에 세잔과 브라크 회화의 본질을 연구하면서 일찍이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표현형식을 창조해냈으며, 고전적 원근법은 완전히 배제되고 인물과 공간이 같은 차원으로 취급되었다. 그 결과 현실에 예측되지 않은 선과 면에 의한 순수한 조형적 세계로서 자율적 질서를 지닌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로서의 추상 예술인 입체주의의 가능성을 한 차원 발전시키게 되었다.

피카소의 대표적 파피에 콜레 기법을 사용한 콜라주 작품 <그림 11>은 비닐, 장판, 조각 등을 붙이고 노끈으로 틀을 만들어 그림의 상상력을 부여하고 깊이감과 색채감을 주었고, <그림 12>는 연인 에바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그렸던 그림으로 나무, 마분지, 종이를 이용하여 기타에 대한 상상력을 넣어 주었다. <그림 13>은 피카소가 잠시 머물렀던 ‘세레’라는 마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푸른 종이에 색종이를 붙이고 목탄과 파스텔로 그림을 그려 창의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림 14>는 미술만큼이나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 생각한 피카소는 풍피두센터 종이위에 당시 발행된 신문을 붙이고 입체파 방식으로 바이올린을 그려 같은 주제를 다양한 재료로 표현해 다른 느낌을 나타내었다. <그림 15>는 잘 그리는 것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 1914년 1월 1일에 발행된 잡지 ‘라세르바’를 오려 붙여 표현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피카소의 창조적 정신은 그가 보여준 많은 양식에서 볼 수 있는데 그의 양식은 사실과 추상은 물론 초현실주의와 표현주의까지도 자신의 것

29) 박지은(2009), 「현대 메이크업의 회화성 연구 -2004S/S~2010F/W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Vol.5 No.3, p.4,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으로 소화시켜 자유롭게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 세계 속에 회화는 물론 조각, 도자기, 판화, 문학 등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범이나 틀에도 얽매이지 않았다.

②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1908년에 제작되어 살롱 도톤느에 출품된 브라크의 풍경화를 본 마티스가 “조그만 입방체(Cube)의 축적”과 같다고 평했고, 또 다른 평론가의 한 사람이 “브라크는 모든 것을 기하학적인 도식, 입방체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평문한데서 입체주의라는 새로운 명칭이 태어났다.³⁰⁾ 피카소 역시 1907년 ‘아비뇰의 아가씨들’에서 이미 입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보여주어 피카소와 브라크의 만남, 또한 세잔과 피카소와 브라크의 만남은 미술의 역사를 선도하는 집단적 운동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브라크는 세잔회화의 본질을 연구하면서 대상의 존재성을 기본적인 형태와 양에 의해 포착하고 평면적 도형의 결합으로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한 전기 입체주의의 발전을 통해 대상을 해체하고, 그 해체된 대상을 재구성하였다. 또한 대상의 형상은 수정의 잘게 깎인 복잡한 면속에 거의 알아볼 수 없고 화면 역시 입방체형으로 강조된 볼륨의 병치로, 색채는 단색조의 금속적 화면을 통해 직선, 곡선, 색면에 의한 순수한 조형적 구성의 이지적 그림을 표현해 내었다. 그는 현실에 예속되지 않은 자율적 질서를 지닌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로 포착하여 추상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를 맞아 브라크는 과거의 엄격한 입체주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법으로 발전하여 정밀, 균형, 안정, 조화가 되는 파피에 콜레 기법의 조형성을 달성하였다. 그는 주로 실내정물, 초상 등의 연작을 그렸으며, 1937년 카네국제미술대전 수상 후 국제적 명성을 얻고 20세기 최대 거장의 한사람으로 성장했다.³¹⁾ 또한, 판화, 타피스리, 도자기, 보석디자인, 조각 등 다방면에 작품을 남기며 대표적 작품으로 <그림 16>은 기타를 안고 있는 한 사나이를 주제로하여 모노크로움의 기조와 색다른 분

30) 진중권(2011), 전계서, p.55.

31) 신현주(1992),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조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위기의 터치로 복잡한 면속의 조형성을 강조하는 브라크만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다. <그림 17>은 브라크의 예술이 가장 다채롭게 무르익던 시기의 작품으로 양쪽 주황색 벽면 사이에 가져온 테이블에 비쳐 든 빛이 따스하게 비쳐주고 있으며, <그림 18>은 옆 얼굴의 윤곽선과 머리에 쏘인 빛,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기타의 현 몇 줄과 둥글린 곡선 따위의 극미한 소묘 표현으로 실재하는 세계와의 연관성을 강조해 줌으로서 수많은 조각들과 작은 면들로 분해하여 인물을 그 주변세계와 연결 지어주고 있다. <그림 19>는 둥근 탁자에 기타, 사과, 칼 등을 그려 살아있는 듯한 색채감을 더해 세련미를 주었으며 종이를 붙여줌으로서 작품의 표현력을 더해 주었다.

(3) 현대에 나타난 파피에 콜레 기법의 응용사례

① 의상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그림 20>은 미래지향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기하학적인 느낌으로 종이를 길게 잘라 붙여서 헤어장식과 의상을 연출하였다. <그림 21>은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하여 머플러와 의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를 원통 모양으로 잘라서 하나하나씩 모델의 몸에 맞게 붙여 이어서 만들고, 목에는 바람에 날리는 머플러를 연출하듯이 포인트를 주었다.

② 공예품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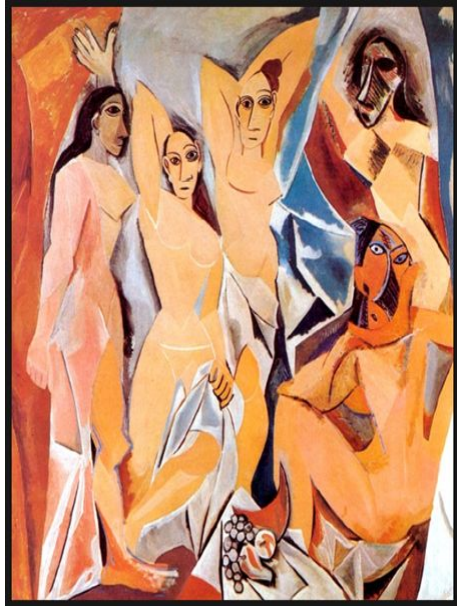
<그림 22>, <그림 23>은 단순한 종이를 벗어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으며 종이를 섬세하게 붙여 마치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나타내어 주었다. 종이란 소재를 이용하여 상상하지 못했던 공예품을 통해 종이의 무한한 변신을 알 수 있었다.

③ 현대메이크업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그림 24>는 잡지의 입술부분을 오려서 모델의 입술부위에 놓고 마치 모델의 입술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는 시각적 효과로 예술적이고 장식적

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5>는 종이에 모델의 얼굴을 일러스트로 그려 붙여줌으로서 작품의 착시효과를 주는 조화도를 높이고 있다.





<그림 9>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1907)
<http://blog.naver.com/cmcollection?Redirect=Log&logNo=130009020509>



<그림 10> 브라크, 레스타크 풍경 (1908)
<http://www.art2me.org/images-art/08-gamsang/08-20century/02-cubism/Braque/image01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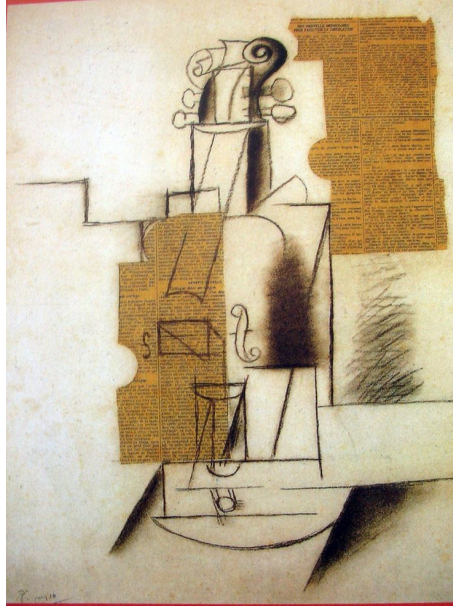
<그림 11> 피카소, 등나무가 있는 정물화 (1912)
<http://blog.naver.com/sunmi1519>



<그림 12> 피카소, 마줄리 (1914)
<http://cafe.daum.net/yangsu1212/5QYI/1>



<그림 13> 피카소, 세레의 풍경 (1913)
<http://mrsoon.egloos.com/170617>



<그림 14> 피카소, 바이올린 (1912)
<http://blog.naver.com/wlsgk8670?Redirect=Log&logNo=100143488552>



<그림 15> 피카소, 담뱃대, 유리잔, 낡은 술병 (1914)
<http://blog.naver.com/wlsgk8670?Redirect>



<그림 16> 브라크, 기타를 든 남자 (1911)
<http://www.cyworld.com/bromise/5981581>



<그림 17> 브라크, 과일과 기타 (1911)
[http://blog.naver.com/fldrhwhdk?Redirect=](http://blog.naver.com/fldrhwhdk?Redirect=Log&logNo=10016638379)
[Log&logNo=10016638379](http://blog.naver.com/fldrhwhdk?Redirect=Log&logNo=10016638379)



<그림 18> 브라크, 포르투갈 사람 (1911)
[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Log&logNo=110023798711)
[Log&logNo=110023798711](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Log&logNo=110023798711)



<그림 19> 브라크, 둥근 탁자 (1929)
[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Log&logNo=110023798711)
[Log&logNo=110023798711](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Log&logNo=110023798711)



<그림 20> 의상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http://blog.naver.com/ljeul?Redirect=](http://blog.naver.com/ljeul?Redirect=Log&logNo=60129307900)
[Log&logNo=60129307900](http://blog.naver.com/ljeul?Redirect=Log&logNo=60129307900)



<그림 21> 의상에 응용된 파피에 폴레
[http://blog.naver.com/ljeul?Redirect=](http://blog.naver.com/ljeul?Redirect=Log&logNo=60129307900)
[Log&logNo=60129307900](http://blog.naver.com/ljeul?Redirect=Log&logNo=60129307900)



<그림 22> 공예품에 응용된 파피에 폴레
[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Log&logNo=120083082674)
[Log&logNo=120083082674](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Log&logNo=120083082674)



<그림 23> 공예품에 응용된 파피에 폴레
[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Log&logNo=120083082674)
[Log&logNo=120083082674](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Log&logNo=120083082674)



<그림 24> 메이크업에 응용된 파피에 폴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Redirect=Log&logNo=100134650725](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25> 메이크업에 응용된 파피에 콜레

<http://blog.naver.com/mkuphighheel?>

Redirect=Log&logNo=100134650725



HANSUNG
UNIVERSITY

제 3 절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아트메이크업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라 할 수 있다. 마치 화가들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듯이 모델의 얼굴과 몸에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한계를 넘은 것을 말하며, 미용학 사전에서는 ‘얼굴 혹은 신체를 바탕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거나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메이크업을 예술적 경지로 올리는 작업의 분야이다.’³²⁾라고 정의되었다.

현대의 아트메이크업은 20세기 후반에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공존과 혼합을 통해 기존의 스타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다채롭게 융화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다.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하는 뷰티메이크업의 영역에서 나아가 개인의 창조성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은 아트 요소와 결합한 메이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즉, 아트 영역은 기존의 메이크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표현방법으로 아티스트들의 감성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코드로 자리매김하고 단순히 얼굴에만 행해지는 개념이 아닌 신체 전체로 확대되어 지는 추세이며, 의복의 대체 개념으로도 활용되어진다. 지금까지 일회성에 그치던 것에서 벗어나 대중매체와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예술적 측면뿐 아니라 패션쇼, 광고 홍보 등 상업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트메이크업은 인체를 통하여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의 수단으로 작가의 목적 외에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의 기구, 재료 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체에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한 예술로서 새로운 현

32) 한국미용학회(2003), 『미용학사전』, 서울 : 신광출판사, p.573.

33) 장현숙(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88.

상, 새로움의 추구, 새로운 현실성을 표현하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2.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디자인 요소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디자인적 요소를 유정주(2003)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형, 색채, 질감으로 분류하였으며, 사례를 통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형

형을 이루는 요소인 점, 선, 면은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점은 크기와 명암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며 선은 무수한 점의 집합으로 굵기와 크기, 방향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만든다. 점은 크기나 형태 이외에 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선은 점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요소로 폭, 굵기가 다양하고 형태도 여러 가지이며, 면은 면을 구성하는 직선, 곡선 각각의 성격을 나타내면서 형태의 방향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조형적인 작품표현에 있어서 점, 선, 면은 유기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차원적 세이프(Shape)와 3차원적인(Form)의 형태가 혼합된 형태를 갖고 비대칭과 불균형의 비정상적이며 추상적인 형태, 얼굴의 윤곽이나 형태를 생략하거나 은폐하여 특정 부위만 과장되게 표현하는 형태, 실제 대상을 비현실적으로 변형하여 동물의 모티브를 묘사하는 형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⁴⁾ <그림 26>은 얼굴 전체에 원형 모양의 점을 표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안정적이면서 입체감 있는 느낌을 표현하였고, <그림 27>은 양감이나 입체감을 주로 표현하는 아이섀도우에 선적인 느낌의 형태를 강조하고 연두색이나 보라색 등의 보색관계의 컬러를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28>은 면의 형태를 바탕으로 빨간색의 라이닝 칼라와 노란색의 강한 대비 위에 나비의 모형을 붙여 면과 색의

34)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6.

대비에 균형을 깨트리고 하나의 입체적인 조형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2) 색채

색은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사물은 형태와 더불어 색채를 가지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색채에 대한 시각적 반응은 다른 디자인 요소에 비해 즉각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부분이며 시각에 의해 지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색채에 대한 감각은 선천적인 능력이지만 주변의 다양한 색채를 인지하고 구별 할 수 있기까지는 직접적인 관찰의 경험이 요구된다.

색채는 물리적인 사물의 외관을 변화하는 착시현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간에게 있어서 분위기와 감각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 특정한 색채의 배합은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고 이것은 현대의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활용된다. 과도하게 많은 색상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 생략하는 등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색채 범주를 벗어나 자유롭게 색상을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시각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주로 원시적이고 강렬한 색채를 통하여 작품제작을 하며 이는 인간의 감정 전달과 함께 문화적 전통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색은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 생활방식, 개인의 성격에 따라 사람들은 특정한 색을 좋아하게 되며, 비록 그 색상이 본인을 더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시선 집중이나 정면대결을 피하려는 사람은 밝고 진진적인 색을 선택하지 않는다. 색채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경험하고 있다.³⁵⁾ 즉,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서 대뇌까지의 경로인 시각 전달계를 통하여 외부의 물체를 인지하는 것은 모두이며 대개 지각할 수 있는 색채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지만 그 성질들은 색상, 명도, 채도의 색의 삼속성으로 설명된다. <그림 29>는 입술에 알록달록한 비비드 칼라의 색을 사용하여 활발하고 선명한 느낌으로 개성이 강한 시각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35) 이나영(2000), 「패션에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계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3) 질감

질감은 물체표현에서 느껴지는 물체 고유의 촉감을 말한다. 아트메이크업의 질감표현은 물체가 가지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표면적인 성격이나 특징을 말하며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도구의 특성을 이용한 표면 효과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³⁶⁾ 질감은 형태, 색채와 함께 시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으로 작품 디자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트메이크업에 있어서 질감표현은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각되고 기억되는 촉각적 질감과 우리의 대뇌에 기록되고 저장되는 시각적 질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감의 근원은 자연의 질감에 근거한다.

부드럽다, 거칠다, 갈라진다, 말랑말랑하다, 딱딱하다, 글로시하다, 미끈미끈하다, 흠이 묻은 효과, 녹이 낀 금속효과, 다양한 직물의 표현효과, 촉촉한 느낌, 균열감 등과 같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 보았을 때의 느낌으로 표현된다. 또한 색이나 명암효과, 표면지문 등을 통해 촉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아트메이크업의 질감표현은 매우 중요하며 작품의 이미지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 질감표현기법

① 글로시한 효과

빛에 의한 광택이기보다는 리퀴드한 질감에서 오는 윤기가 촉촉하고 풍부한 느낌을 주는 질감을 말한다. 베이비오일이나 글리세린, 립글로스 등을 사용하여 광택 있고 미끈거리며 윤기 나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글로시한 효과는 화장을 두껍게 해도 얇아 보이며 맨 얼굴의 광택을 연상시키기에 맨 피부 또는 썬탠한 피부에 단독으로 사용하면 글로시한 효과는 더욱 효과적이다. <그림 30>은 얼굴 전체에 글리세린을 발라 윤기있고 미끈거리는 글로시의 질감표현을 하였다.

36) 이영희(2007), 전계논문, p.8.

② 매트한 느낌

석고, 머드, 크림팩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에 바른 후 완전히 건조시켜 온도의 차이로 인해 피부 사이사이로 갈라지는 효과를 얻어 자연스러운 균열감을 주거나 재료에 따라 딱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매트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다. <그림 31>은 전반적인 얼굴에 크림타입의 매트한 성분을 발라 입술과 피부를 폐일한 피부톤으로 통일하여 몽환적이면서도 은은함을 표현하여 상대적으로 아이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더해주었다.

③ 펄감

화려한 느낌을 주거나 우주적인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크기가 다른 다양한 색상의 펄을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조명에 의해 보다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젤 타입, 가루타입, 스프레이타입이 있으므로 작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밀레니엄 시대가 오면서 기계적이고 사이버틱한 느낌의 질감이 우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품표현과 컨셉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림 32>는 몸 전체에 어두운 갈색의 화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바르고 그 위에 금색의 펄 파우더와 붉은 펄 입자를 사용하여 섹시하면서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그림 33>은 눈 주위에 가루타입의 펄을 줌으로서 화려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그림 26> 점에 의한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sotkfk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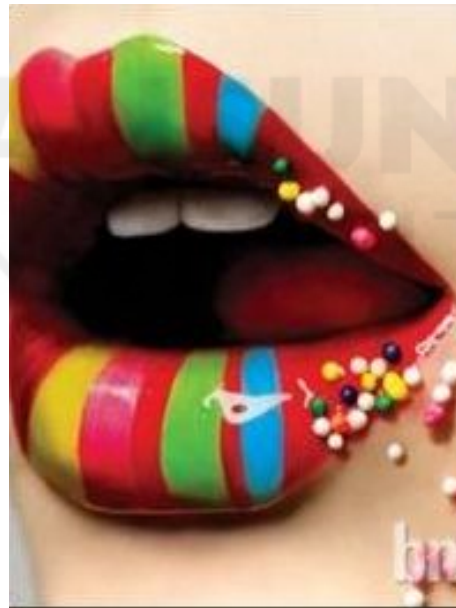
<그림 27> 선에 의한 표현기법

http://cafe.naver.com/mmbeauty.cafe?iframe_url



<그림 28> 면에 의한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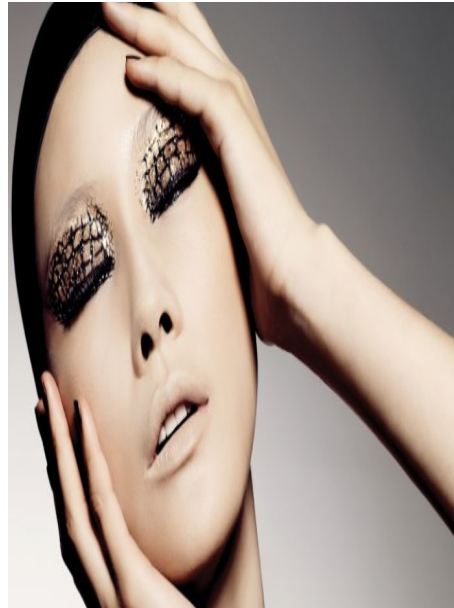


<그림 29> 색채에 의한 표현기법

http://cafe.naver.com/mbeauty1011.cafe?iframe_url



<그림 30> 글로시한 질감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sotkfk0413>



<그림 31> 매트한 질감 표현기법
http://www.style.co.kr/vogue/trend/trend_view.asp?menu_id=02040400&c_idx=010201010000929



<그림 32> 펄을 이용한 질감 표현기법
http://www.style.co.kr/beauty/b_view.asp?m



<그림 33> 펄을 이용한 질감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sotkfk0413>

3. 아트메이크업의 유형

아트메이크업은 입체적인 인체라는 곡선 위에 추상적이며 다양한 시각적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오늘날 복잡하고 독특한 개성표현에 의해 미에 대한 본질적 개념을 깨고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메이크업은 일반적으로 뷰티메이크업, 무대메이크업, 예술성이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뷰티메이크업은 내추럴(Nature)메이크업, 웨딩(Wedding)메이크업, 광고(CF)메이크업, 패션(Fashion)메이크업 등으로 분류되고, 무대메이크업은 일반 분장, 회화적 분장, 특수 분장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성이 강한 아트메이크업을 염영숙(2010), 「실 소재를 응용한 접시 문양 제작에 관한 연구」, 김영희외 6인(2001), 『토탈메이크업』을 바탕으로 환타지메이크업(Fantasic Make-up),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바디페인팅(Body Painting)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환타지메이크업(Fantasic Make-up)

환타지메이크업은 자신이 상상하는 구체적인 생활 속의 표현을 형상화시키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아티스트들의 의도를 추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에 인간의 상상을 기본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환타지메이크업을 통한 표현 방법에는 구체적 표현과 추상적 표현 두 가지의 특성이 있다. <그림 34>는 파란색을 주조색으로 눈꼬리 부분에 나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유사한 컬러의 꽃을 장식하여 신비스러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35>는 강한 컬러와 독특한 속눈썹을 재미나게 표현한 작품으로 눈 주위의 다양한 컬러의 작은 원형들이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더해주며, 서로 다른 색상의 대비 또한 울동적인 느낌으로 시각적 효과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

2)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페이스페인팅이란 말 그대로 물감을 이용하여 ‘얼굴에 칠하는 것’으로 얼굴의 곡선과 면을 최대한 활용한 미적표현의 예술작품이다. 일반적으로 분장예술의 한 장르로 인식하여 다양한 주제와 연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페이스페인팅은 인체에 무해한 물감을 사용하여 인간의 내적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인체를 하나의 캔버스로 보고 포인트를 주듯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얼굴전체에 그리기도 하는 형태로서 그 사용처와 역할은 다양하다.

페이스페인팅은 특별하고,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고, 집중되기를 원할 때 하는 특별한 메이크업이다. 서양에서는 크고 작은 화려한 행사, 가면무도회, 신년파티, 혹은 사육제의 마지막 날 이브닝 파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르러 각종 이벤트, 연예계, 광고, 연극, 영화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³⁷⁾ <그림 36>은 사슴의 특징적인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갈색과 흰색 물감을 이용하여 사슴의 털 느낌을 나타내고 디테일한 선을 나타내어 페인팅 하였으며, <그림 37>은 얼굴의 골격과 구조를 이용한 작품으로 남자 얼굴과 여자얼굴의 입 부위에 물고기의 입을 그려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의도한 흥미를 부여한 작품이다.

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바디페인팅은 인체에 채색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와 방법을 이용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바디페인팅의 기원은 여러 학설로 설명되는데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서 타인에게 미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생태적 미화 본능설과 자신의 힘과 용기, 능력,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트로피즘, 상대방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주기 위한 테러리즘, 장식을 통해 악은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믿는 토데미즘, 신체 일부를 의도적으로 강조함으로서 시선을 끌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과시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에로티시즘 등으로

37) 김영숙(2003), 전계논문, p.19.

나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인체의 아름다움과 회화의 예술성을 접목하여 창조적인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인류가 언제부터 자신의 몸에 색을 이용하여 칠함으로서 창조적 충동을 표현하고자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모든 대륙의 사람들이 선사시대부터 그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은 벽화와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폭에 그리는 평면적인 회화와는 달리 바디페인팅은 곡선과 면, 골격 등으로 이루어진 입체적인 몸 위에 그림을 그리므로 인체에 따라 변하는 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순간의 육체적 변화를 보여주는 행위예술과 동일시되기도 하고, 조명과 음악, 의상 또는 소도구와 함께 주제에 맞는 퍼포먼스를 자아내는 예술적 차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한다.³⁸⁾

<그림 38>, <그림 39>는 인체를 하나의 화폭으로 삼고 자유로운 주제를 몸의 굴곡을 살려 시각적으로 입체감 있도록 배치하여 표현한 바디페인팅 작품이다.



38) 배기혜(2009),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그림 34> 꽃을 이용한 환타지메이크업
<http://blog.naver.com/ckoer23?Redir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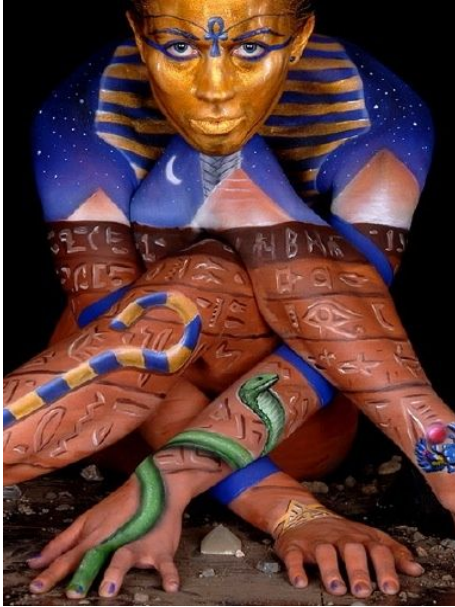
<그림 35> 속눈썹을 이용한 환타지메이크업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es21c&logNo=50073763434&redirect=Dlog&widgetTypeCall>



<그림 36> 동물표현 페이스페인팅
<http://blog.naver.com/zmfogog?Redirect=Log&logNo=90094939845>



<그림 37> 시각적 페이스페인팅
<http://www.aol.com>



<그림 38> 바디페인팅

http://blog.naver.com/kor_kimpo?Redirect=Log&logNo=110115709027



<그림 39> 바디페인팅

<http://blog.naver.com/justwofus3?Redirect=Log&logNo=40066401689>



4.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아트메이크업은 무한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과 재료가 지니는 특성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전체를 특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표현하게 되었다.

현대에 나타나는 아트메이크업 표현기법은 회화적 표현기법, 오브제 표현기법,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컴퓨터 그래픽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였다.

1) 회화적 표현기법(Pictorial Expressive Technique)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법으로 다양한 색채와 여러 가지 표현방식으로 작가의 관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화가가 회화작품을 통해 작가의 의식과 감성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작품을 통하여 관객과 소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예술세계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성을 갖게 해준다.³⁹⁾ 회화적 기법은 화운데이션, 컬러 물감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인체에 뿌리거나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의 기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주로 사실적 묘사, 추상적 묘사, 그래픽적 묘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물을 주제로 묘사하거나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시켜서 대중들에게 메시지 전달이 가장 용이하다. 또한 모든 컬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예술가의 색채감각이나 취향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40>은 인체의 굴곡에 사자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앉아있는 자세에서 상체부위에 사자의 눈과 코를 그리고 무릎에는 발톱을 그려 머리카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린 회화적 터치가 돋보이는 작품이며, <그림 41>은 가슴에 소라를 그려 넣어서 손이 소라의 집게 모양으로 보이도록 그려 착시 효과를 준 회화적 표현에 충실한 작품이다.

2) 오브제 표현기법(Objet Expressive Technique)

39) 산업자원부(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p.50.

오브제는 라틴어의 ‘objectum’에서 기원된 말로 ‘앞으로 던져진 것’이라는 뜻이며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⁴⁰⁾ 오브제는 예술의 재료, 형식,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는 시대와 상관없이 꾸준히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였으며, 현대적인 기법을 접목시켜 새롭게 변화된 오브제가 사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메이크업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브제는 종이류, 보석류, 패브릭, 깃털, 금속류, 인조 속눈썹, 비닐 등이 있다. 오브제는 개별적인 소재로 이용하거나 그 소재 자체를 변형하여 패턴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소재를 복합하여 색다른 분위기의 오브제를 만들기도 하며, 메이크업 디자인에서 오브제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 패턴 등을 결합하여 무한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림 42>, <그림 43>은 오브제의 질감표현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인체에 표현하여 메이크업과 오브제가 통일이 되어 숲을 연상시키며, 깃털을 활용하여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3) 에어브러시 표현기법(Airbrush Expressive Technique)

에어 컴프레서에서 압축된 공기를 에어브러시 건을 통하여 분사되는 원리로 핸드 페이팅에서는 표현이 힘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표현이 가능하며, 스텐실을 이용하여 원하는 범위 내에서 분사하여 표현하는 것⁴¹⁾으로 현재에는 그래픽 디자인 및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현대회화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아트메이크업 작업 시 에어브러시의 사용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손으로 직접 칠하는 것보다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44>, <그림 45>는 동물의 호랑이와 코끼리를 인체에 그린 작품으로 에어브러시를 이용하여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며, 주름이나 피부표현의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40) 강명주(2008), 「눈 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연구 : 2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41) 한석우(1994), 『입체조형』, 서울 : 미진사, p.45.

4)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UVcolor & Blacklight Expressive Technique)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은 바디페인팅 물감과 빛을 결합한 과학적 바디페인팅 기법이다. <그림 46>, <그림 47>은 곡선과 면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형태를 중심으로 연출된 작품이다. 이러한 UV물감은 일반 수성물감과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색상의 선명도와 발광력이 떨어지게 되고 같은 UV물감을 혼합하여 사용을 하거나 덧칠을 하게 되면 선명도와 발광력은 강해진다.⁴²⁾

UV작품은 무대공연이나 쇼 무대에서 특히 많이 활용되고 이 표현기법은 UV라이트의 와트(Watt)수에 따라 색상의 선명도가 좌우된다. 공연을 하기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UV물감의 성질과 효과를 사전에 확인하고, 무대의 크기, 연기자의 활동범위, UV라이트가 작품에 반응할 수 있는 거리 등을 잘 계산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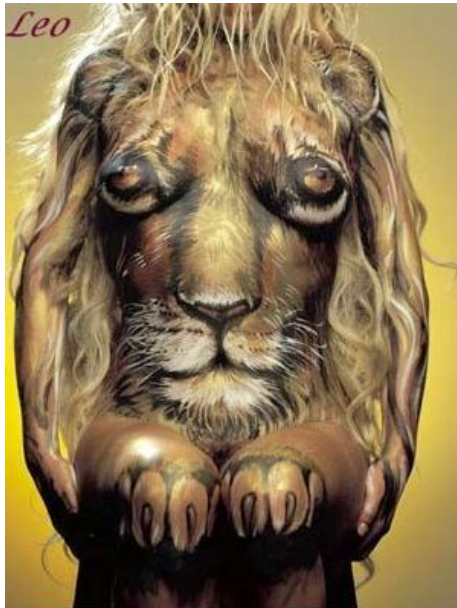
5)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Computer Graphic Expressive Technique)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예술은 압력이나 출력장치의 부품이나 컴퓨터 본체의 성능에 의존하여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따라 표현의 다양성과 시각의 가능성을 넓힘으로서 다른 예술의 장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컴퓨터상 정교한 작업 및 저장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3D그래픽 작업을 프린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아트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회화, 조각, 순수사진, 시각예술, 설치미술을 이루는 예술형태이다. 기술적으로 컴퓨터 기술이 핵심이 된다. 디지털 아트의 한 형태인 디지털 페인팅은 2, 3차원의 컴퓨터그래픽 이미지를 창출하여 정지된 화상의 미적 개념을 다룬다.⁴³⁾

<그림 48>, <그림 49>는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색채의 조절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와 신체적인 결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섬세하면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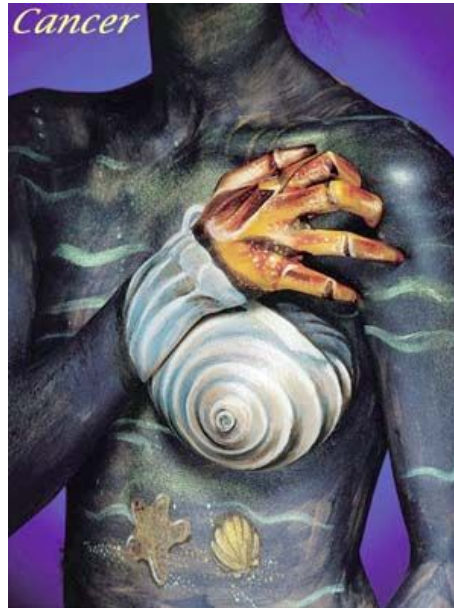
42) 김미림, 최희자(2011), 「UV라이팅에 나타난 바디페인팅 시각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지』, Vol.11 No.2, p.271, 한국콘텐츠학회

43) 박천신(2008),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 (주) 한언, p.16.



<그림 40> 회화적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rkfaorltbri?Redirect=Log&logNo=140670788>



<그림 41> 회화적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rkfaorltbri?Redirect=Log&logNo=140670788>



<그림 42> 오브제 표현기법

http://cafe.naver.com/mbsscho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



<그림 43> 오브제 표현기법

http://cafe.naver.com/herco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그림 44>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Log&logNo=20099417155)
[Log&logNo=20099417155](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Log&logNo=20099417155)



<그림 45> 에어브러쉬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Log&logNo=20099417155)
[Log&logNo=20099417155](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Log&logNo=20099417155)



<그림 46>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Log&logNo=130075943926](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그림 47> UV발광물감과 블랙라이트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Log&logNo=130075943926](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그림 48>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tttww2003?Redirect=](http://blog.naver.com/tttww2003?Redirect=Log&logNo=90039149920)
Log&logNo=90039149920



<그림 49> 컴퓨터그래픽 표현기법

[http://blog.naver.com/tttww2003?Redirect=](http://blog.naver.com/tttww2003?Redirect=Log&logNo=90039149920)
Log&logNo=90039149920



HANSUNG
UNIVERSITY

제 4 절 아트메이크업에 나타난 꼴라쥬 소재 특성 분석

1. 아트메이크업과 꼴라쥬

아트메이크업은 ART와 MAKE-UP의 합성어로 풀이하면 예술과 메이크업이 만난 새로운 예술장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메이크업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아트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예술성을 적용해 보다 창의적이면서도 독특한 메이크업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아트메이크업은 아티스트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과 재료, 도구를 사용해 인체에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마치 화가들이 캔버스에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메이크업과 달리 실험적이면서도 도전적이고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고 있다. 초기에 프랑스나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아트메이크업은 최근 국내에서도 광고매체와 같은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화됨은 물론 메이크업 관련 학회나 협회를 통하여 각종 대회와 세미나, 학계의 연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아트메이크업의 다양한 표현기법 중 꼴라쥬 기법의 조형예술성은 오늘날 아티스트들에게 획기적인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술적이면서도 역동적 느낌의 꼴라쥬를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의 매력은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의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예술적 시도로 표현되고 있다.

2. 아트메이크업에 응용된 꼴라쥬의 소재 분석

아트메이크업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 소재와 다양한 기법의 사용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표현이 보편적으로 도출되고 있다. 그 중 다양한 꼴라쥬 기

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소재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아트메이크업에 사용되는 콜라주의 사례를 분류·분석하고자 한다.

1) 인조보석

인조보석은 반짝거리는 효과와 화려한 느낌을 표현해 준다. 또한 입체감이 필요한 경우나 장식성을 강조 할 때 사용한다. 인조보석을 비주 또는 큐빅이라고도 하며, 작품의 주제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악센트를 줄 수 있다. 속눈썹 풀을 사용해서 피부에 붙이며 크기에 따라 붙이는 위치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디자인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 <그림 50>, <그림 51>은 큐빅을 이용하여 얼굴 전체에 붙이고 헤어장식과 의상에도 표현하여 차가우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그림 52>는 보라색과 분홍색계열의 큐빅을 눈 주위에 붙이고 긴 속눈썹을 부착하여 큐빅과 메이크업의 조화를 아름답게 연출하였다. <그림 53>은 색상 대비를 위하여 얼굴 전체를 검정색 라이닝 컬러로 그려주고 빨간색의 입술과 큐빅을 규칙적으로 나열하여 기계적이면서 주술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2) 깃털

자연물의 도입은 자연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경향이 많은데, 깃털은 과거에서부터 인체를 장식하는 요소이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소재로 아트메이크업의 예술적 표현에 자주 이용된다. 깃털의 조형적 특징을 통하여 일정한 형식을 인체에 장식적으로 반복하여 깃털의 동적인 이미지와 인체의 율동적인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깃털이 갖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작품의 주제에 따라 새로운 표현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 오늘날 아트메이크업 표현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림 54>는 깃털의 소재를 살려 메이크업에 접목시킨 작품이다. 깃털의 부드러운 이미지와 날카로운 이미지를 합쳐 이마에 붙여주고 청록색과 갈색 아이섀도우의 색감으로 깃털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깃털을 활용하여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

림 55>는 노란색 깃털을 눈 중심으로 포인트를 준 아트메이크업으로 헤어의 나비모양 장식과 함께 작품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그림 56>은 공작새의 깃털을 눈 주위에 붙이고 빨간색과 검정색 라이닝 컬러를 사용하여 새의 부리 모양을 표현하였다. 입술은 빨간색으로 말라 새의 요염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3) 금속

금속은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화된 공예재료의 한 요소로 메이크업에서는 다양한 형태별로 주로 색깔과 장식을 첨가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그림 57>은 직사각형으로 금속을 길게 눈두덩이에 아이섀도우를 한 것처럼 붙여주었고, 입술 또한 금속 펄을 이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헤어의 은빛색과 어울려져 금속의 차가운 성분처럼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신비스러움을 주고 있으며, <그림 58>은 금속으로 만든 머리빗을 헤어장식으로 붙이고 얼굴전체에 시계태엽 형태의 금속 장식을 불규칙적으로 표현하여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작가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4) 글리터

글리터는 파우더, 젤, 스프레이, 접착성이 있는 아쿠아 형태의 종류가 있으며 사진촬영을 할 때 노출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반짝이를 뿌린 부분이 먼지처럼 보이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바디페인팅 작업 후 조명아래 반짝거리는 효과는 화려한 장식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고 작품의 성격에 따라 크기가 다른 다양한 색상의 펄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림 59>는 2004 S/S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으로 눈두덩이에 입자가 굵은 보라색의 글리터를 사용하고 입술은 와인컬러의 표현으로 디올 패션쇼의 신비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였으며, <그림 60>은 빨간색과 검정색의 글리터를 페이스라인에 붙여주고 은색의 글리터를 눈두덩이와 눈밑에 말라 마치 눈물을 흘리는 느낌으로 연출하고 입술은 검정색계열을 사용하여 그로테스크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61>은 광고 잡지에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으로

보색 컬러의 클리터를 이용하여 클리터의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5) 페브릭

페브릭은 자유롭게 오려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폴라쥬 재료로 사용된다. 페브릭을 이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섬세한 입체감을 표현하여 드라마틱한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주로 사용되는 소재로는 레이스, 망사가 있다. <그림 62>는 검정색의 레이스를 얼굴에 감싸고 빨간 입술을 통해 신비하면서도 요염한 관능미를 표현하였으며, <그림 63>은 2001 S/S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으로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레이스의 도입으로 탈중심화 현상을 표현하였다. 아트메이크업 기법을 왜곡하여 눈에 레이스로 문신의 형태와 흘러내리는 붉은 입술로 괴기스럽고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그림 64>는 2003 S/S 크리스찬 디올 메이크업으로 눈썹부분에 레이스를 오려 붙여서 눈썹모양을 나타내었고 그 위에 긴 인조 속눈썹을 붙여 매혹적이며 유희적인 느낌을 준다.

6) 인조속눈썹

인조 속눈썹은 눈을 커 보이게 하고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돋보이게 한다. 작품의 테마와 주된 이미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컬러의 속눈썹을 사용하여 전혀 다른 재질의 것을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의 인조 속눈썹은 개성적이고 환상적인 디자인으로 아트메이크업의 조형적 예술성을 더해 주고 있다. <그림 65>는 분홍색의 컬러감과 함께 속눈썹으로 언더에도 포인트를 주어 보라색의 아이섀도우로 눈이 깊어 보이게 하여 관능적이면서도 섹시하게 연출하였으며, <그림 66>은 비비드 컬러를 이용하여 빨간색 입술과 분홍색 치크로 얼굴 전체에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컬러풀한 속눈썹으로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더욱 상큼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67>은 얼굴전체의 규칙적인 마름모 형태와 눈 부위의 곡선 형태를 파스텔 컬러로 처리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독특한 형태의 속눈썹을 이용하여 포인트를 살린 유희적 이미지의 작품이다. <그

림 68>은 맑고 깨끗한 느낌의 메이크업에 화이트 컬러의 길고 풍성한 속눈썹을 붙여 전체적으로 몽환적이면서 신비스러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7) 종이

종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가운데 컷아웃(Cutout) 기법을 이용하여 메이크업에 시각적 재질감과 촉각적 재질감을 동시에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아트 메이크업에서의 예술적이며 장식적인 느낌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표현재료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조형 세계를 제시하여 메이크업 이미지 표현에 있어서 적합한 기법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독창적인 메이크업 기법의 창출은 물론 예술성과 장식성을 높이고 있다. <그림 69>는 종이의 재질특성을 이용하여 파란색 종지와 검정색 종지를 백조의 깃털모양처럼 잘라 눈에 붙여주었고 눈언더에도 검정색 종지와 흰색 종지를 붙여주었다. 시각적으로 종지가 깃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그림 70>은 2004 S/S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으로 눈 주위에 형광느낌의 종지를 원형모양으로 잘라 붙여 아이 포인트를 주고 빨간색 입술을 표현하여 패션쇼의 개성적인 느낌을 연출하였다.



<그림 50>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jycho75?Redirect=Log&logNo=130123927253>



<그림 51>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52>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jycho75?Redirect=Log&logNo=130123927253>



<그림 53> 큐빅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cafe.naver.com/bobbibrown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그림 54> 깃털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byeyouandme?](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37044048)
[Redirect=Log&logNo=100137044048](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37044048)



<그림 55> 깃털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cafe.naver.com/scaubautyart.cafe?](http://cafe.naver.com/scaubautyar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7&)
[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7&](http://cafe.naver.com/scaubautyar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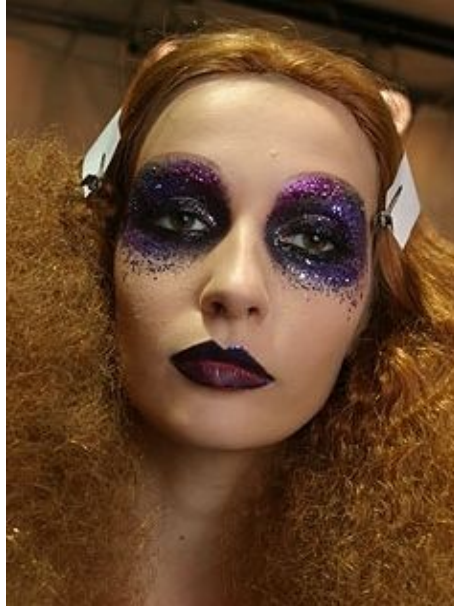
<그림 56> 깃털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cafe.naver.com/makeupfs.cafe?](http://cafe.naver.com/makeupfs.cafe?iframe_url=/ArticleRead)
[iframe_url=/ArticleRead.](http://cafe.naver.com/makeupfs.cafe?iframe_url=/ArticleRead)



<그림 57> 금속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byeyouandme?](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Redirect=Log&logNo=100105163876](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그림 58> 금속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그림 59>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rain5647?Redirect=Log&logNo=120090433068>



<그림 60>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61>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g10521052?Redirect=Log&logNo=40129208463>



<그림 62> 레이스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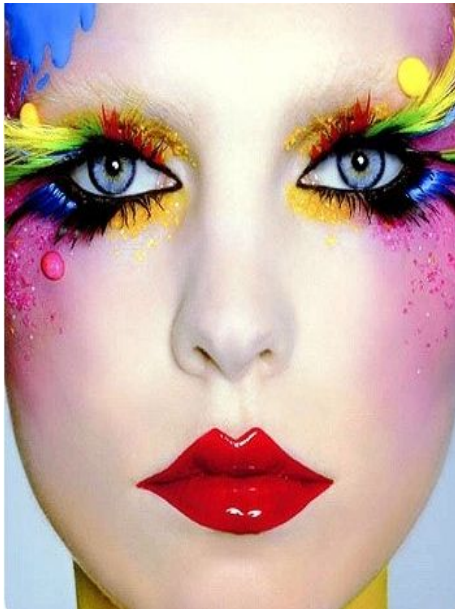
<그림 63> 레이스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www.baidu.com>



<그림 64> 레이스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rain5647?Redirect=Log&logNo=120090433068>



<그림 65>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alsw10303_?Redirect=Log&logNo=130123512899



<그림 66>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ssh3700?Redirect=](http://blog.naver.com/ssh3700?Redirect=Log&logNo=50122951766)
[Log&logNo=50122951766](http://blog.naver.com/ssh3700?Redirect=Log&logNo=50122951766)



<그림 67>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Log&logNo=40120311406](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그림 68> 속눈썹을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Log&logNo=40120311406](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그림 69> 종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Log&logNo=100134650725](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그림 70> 종이를 이용한 메이크업
<http://blog.naver.com/rain5647?Redirect=Log&logNo=120090433068>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작품제작

제 1 절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오늘날 아트메이크업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파격적 소재와 다양한 기법의 사용으로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표현이 도출되어 창조적 의미를 내포하였다.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은 물론 조형 예술적 측면의 아트메이크업에 커다란 변혁과 전환을 주고 있다. 그 중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은 관련 분야의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표현하여 현대 아트메이크업의 조형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시대와 미술사조에 따라 변하고 있는 콜라주의 표현기법 중 종이를 주 소재로 활용한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하여 새로운 창작 활동을 시도하고자 한다. 파피에 콜레 기법은 고정관념에 익숙한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여 종이를 통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파피에 콜레 기법을 활용하여 두께, 크기, 질감, 색상 등에 제한 없는 종이를 활용하여 평범한 인체에 추상적이고 입체감 있게 제작된 5점의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또한 각각의 작품에 컴퓨터그래픽을 적용하여 신비롭고 환타스틱한 또 다른 제작물로 완성하였다.

1. 작품-1 VENUS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1]은 파피에 콜레의 대표적 소재인 종이 중 잡지를 활용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잡지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패션과 디자인을 선두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디자이너들이 추구하는 리얼리티즘을 보여줌으로서 우리는 그 흐름에 맞게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잡지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부터 새로운 모습까지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잡지를 활용하여 시대의 트렌드를 표현하고자 하는 내적인 의미와 잡지의 일부분을 컷아웃 기법으로 인체에 직접 장식하는 외적인 의미를 포함한 작품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베이스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을 위해 크림 화운데이션을 사용하고 입체적인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하이라이트와 섀딩을 처리한 후, 펄 파우더로 화사하게 마무리하였다. 헤어 라인과 섀딩부분에 노란색과 연두색, 분홍색을 터치하여 회화적인 느낌을 더해 주고 화이트 펄로 하이라이트 부분을 강조하여 입체감 있게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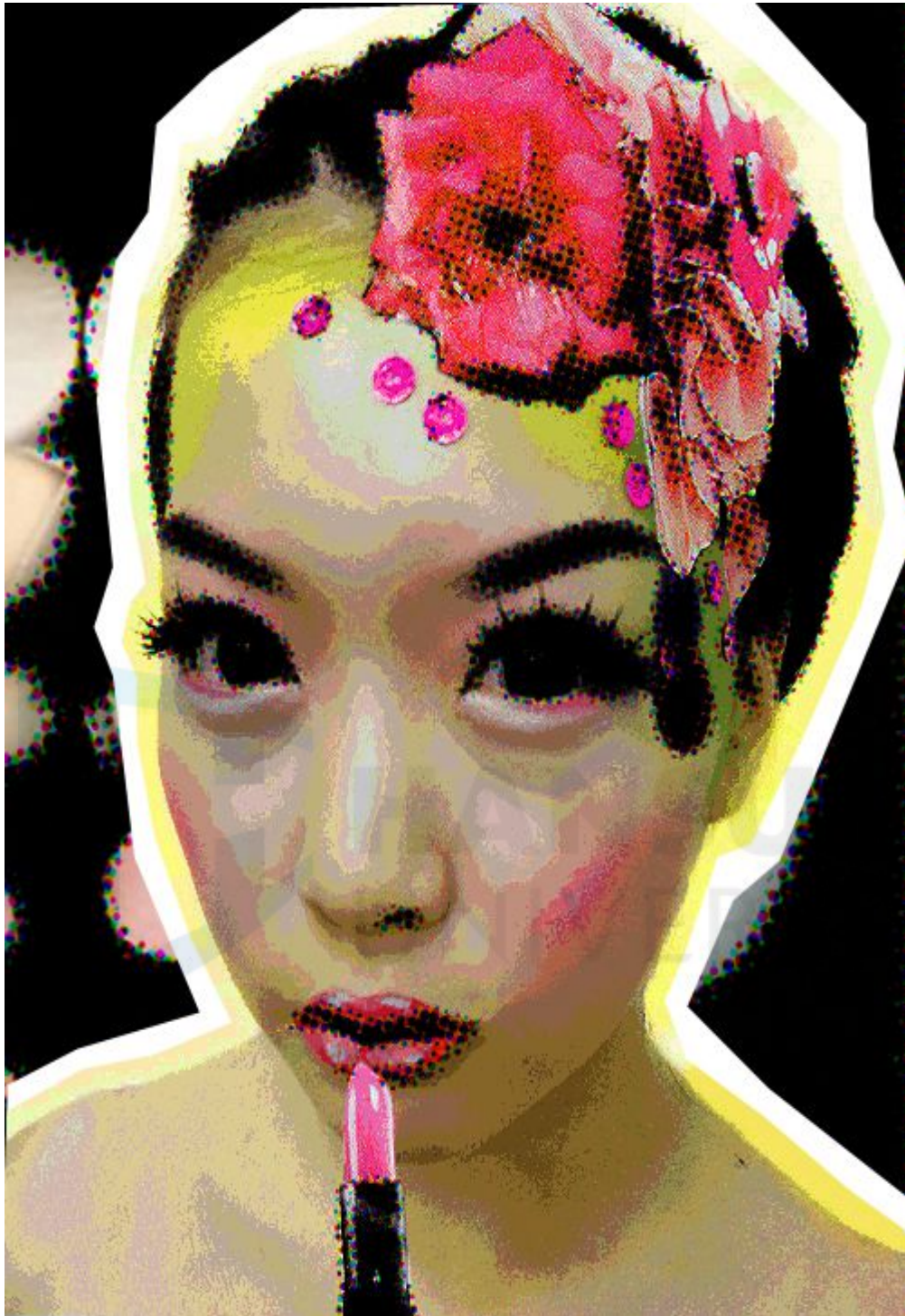
둘째, 아이메이크업은 화사하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파스텔 계열의 분홍색과 연두색 아이섀도우를 가로기법으로 그라데이션하고, 큰 눈을 강조하기 위해 화이트 펄로 눈언더에 포인트를 주었다. 진한 속눈썹과 아이라인을 그려 눈매를 또렷하게 나타내었다.

셋째, 인형같은 얼굴을 표현하기 위해 분홍색의 치크로 귀여운 이미지에 맞게 볼 중심을 둥글게 터치하였고, 입술은 잡지의 메이크업 광고에 나온 입술모양을 오려 직접 입술에 붙여 본인의 입술처럼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헤어 또한 잡지의 꽃모양을 오려서 머리핀을 한 것처럼 장식하였고 큐빅의 느낌을 주기 위해 종이를 원형모양으로 잘라 연속적인 느낌의 포인트를 주어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작품 1] VENUS



[작품 1-1] 컴퓨터그래픽 적용

2. 작품-2 UTOPIA

1) 작품제작의도

[작품 2]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의 내면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사람은 누구나 유토피아의 낙원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원초적 자연 상태로서의 황금시대에 대한 꿈이나 플라톤의 이상국에 대한 꿈까지를 포함하여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이상향을 현세와의 시간적·공간적 연속선상에서 꿈꾸고 있다.

자연의 대상 중에서 꽃을 모티브로 하였다. 꽃은 형태와 구조의 무한한 미적 충동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며 신비스러움의 조화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 할 수 있는 소재로서 아름다운 꽃의 향기에 취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잡지의 메이크업 광고 이미지에서 꽃과 어우러져 있는 눈을 그대로 오려서 모델의 왼쪽 눈에 적용하고 다른 쪽의 본인의 눈을 광고 속 이미지의 아이메이크업과 똑같이 메이크업 하여 마치 모두 자신의 눈 인 것처럼 시각적 착시를 유도 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의 잡티를 커버하기위한 톤 밝은 커버 화운데이션으로 사용하고 T존과 Y존의 윤곽을 살리기 위해 두 톤 밝은 옐로우계열의 화운데이션으로 입체감을 살리고 화운데이션의 밀착력을 주기위해 투명 파우더로 마무리 하였다.

둘째, 아이메이크업은 모델의 눈 위에 꽃으로 연출한 잡지를 오려 왼쪽 눈에 붙여주었고, 잡지의 눈과 비슷하게 연출하기 위해 검정색과 보라색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하여 눈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검정색 아이라인으로 눈언더 점막 부분까지 칠해주어 더욱 강렬하게 표현 하였고, 잡지를 오려 붙임으로서 마치 잡지의 눈이 모델의 눈인 것처럼 착시현상을 주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셋째, 눈썹은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자연스러운 갈색계열의 컬러를

이용하여 상승형으로 그려주었고, 헤어는 스모키 메이크업과 어울리는 팜 프프탈의 강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넷째, 화이트 펄을 이용하여 하이라이트 부분을 강하게 표현하고 분홍색과 흰색 라이닝 컬러를 이용하여 모티브를 그려 넣어 파피에 콜레를 적용한 부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 질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상상속 유토피아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입술부위에 금붕어를 오려 붙여 꽃 속 사이를 헤엄쳐 다니며 이상향을 꿈꾸는 듯 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2] UTOPIA



[작품 2-1] 컴퓨터그래픽 적용

3. 작품-3 도라 마르의 환생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3]은 입체주의 대표적 화가인 피카소의 작품 ‘우는 여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우는 여자’의 작품 배경은 스페인이 프랑스의 파시스트에 패하고 연일 죽음과 공포에 둘러싸여 있었던 시기로 피카소가 세상의 비극성에 억눌려 고민하기 시작 할 때 이다. 그 시기에 등장한 여자가 지적인 인물인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도라 마르이다. 그녀는 약간 어둡고 온화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피카소는 그의 작품에서 그녀를 ‘우는 여인’으로 그려 도라 마르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피카소의 여자였지만 피카소의 바람기 때문에 항상 슬픔에 빠져 있는 그녀의 모습을 아트메이크업에 접목시켜 보았다. 지적인 이미지의 그녀 모습을 파란색 형짚 천을 이용하여 극대화 시켰고, 도라 마르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흰색 종이를 잘라 이마와 볼에 붙여 표현하였다. 그윽하고 슬픔에 잠긴 눈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검정색 종이를 길게 잘라 속눈썹처럼 표현하였다. 도라 마르의 어둡지만 온화한 이미지를 파괴에 끌려 기법을 활용하여 아트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베이스 메이크업은 밝은 피부표현을 위해 2톤 밝은 커버 화운데이션 핑크베이지와 옐로우를 믹스하여 사용하고, 메이크업의 반짝거리는 느낌을 주기 위해 펄 파우더로 마무리한 뒤 화이트 펄로 터치하였다.

둘째, 아이메이크업은 화이트 펄을 이용하여 가로 기법으로 화사하게 표현하였고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두껍게 라인을 그려주고 눈을 부각시키기 위해 진한 속눈썹을 붙여주었다. 그 위에 두꺼운 종이를 길게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 가녀린 여인의 슬픔을 속눈썹으로 연출하였다.

셋째, 도라 마르의 깊은 슬픔의 눈물은 흰색 종이를 이용하여 얼굴 전체

에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기위해 이마 부위와 볼 부위에 붙여주었으며, 깊고 깊은 바다의 마음처럼 파란색의 아이섀도우로 강,약을 주면서 그라데이션하여 표현하였다. 눈물 모양의 큐빅을 전체적으로 붙여 눈물의 반짝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넷째, 헤어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그 당시의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파란색 형걸을 이용하여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작품 3] 도라 마르의 환생



[작품 3-1] 컴퓨터그래픽 적용

4. 작품-4 주작(朱雀)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4]는 손으로 떠서 만든 우리나라 전래의 종이인 한지를 응용한 작품이다. 종이라는 말은 ‘저피(楮皮)’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저(楮)는 닥나무를 말한다. 저피란 닥나무 껍질을 뜻하는데 저피에서 조비, 조해를 거쳐 ‘종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된 걸로 미루어 보아 종이는 닥나무 껍질로 만든 우리의 한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닥나무를 원료로 하여 질 좋은 한지를 생산하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왔다. 한지의 원료에서부터 공정과정까지 우리 고유의 숨결이 묻어나는 가장 대중적인 생활 재료로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에 상관없이 가장 폭 넓게 사용되어 온 재료이다.

한지의 독특한 재질감을 이용한 소재표현기법은 한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며 입체적인 조형성을 나타내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한국의 전통색인 빨간색은 생명의 근원,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국 등을 가진 색으로 빨간색의 한지로 모자를 만들고 기하학적 문양의 한지를 오려 얼굴에 붙여 주작의 느낌을 연출하였다. 남쪽 방위를 지키는 신령을 상징하는 새로 아름다운 붉은 봉황을 아트메이크업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베이스 메이크업은 빨간색의 한지를 강조하기 위해 전체적 피부톤을 흰색 커버 화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얼룩이 지지 않게 두드려주는 페팅 기법을 이용하였고 깨끗한 느낌과 어울려지도록 화이트 파우더로 유분기를 잡아주었다.

둘째, 아이메이크업의 베이스 색상으로는 주황색 아이섀도우로 콧대를 살려주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었으며 붉은 봉황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 빨간색 라이닝 컬러와 검정색 라이닝 컬러로 새의 날렵함을 표현하기 위해 라인을 길게 그려주었다.

셋째, 입술은 주작의 정열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으로 표현하였

으며, 붉은 봉황을 상징하는 동양적인 느낌의 기하학적 문양을 오려 얼굴에 붙이고 그 주위에 빨간색 아이섀도우로 그라데이션하여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퍼지는 듯한 느낌을 신비스러우면서도 아름답게 연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헤어는 기하학적 문양의 붉은색 한지를 이용하여 두꺼운 종이에 붙여 주작의 아름다운 색과 모습을 연출하였다.





[작품 4] 주작



[작품 4-1] 컴퓨터그래픽 적용

5. 작품-5 Cantata

1) 작품제작 의도

[작품 5]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나뭇잎 모양의 종이와 나무를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가지마다 수많은 나뭇잎이 태어나는 봄의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1년이라는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지만 삶의 여정은 순환된다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지를 나무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통하여 연출하고자 하였다. 다시 시작하는 봄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와 영원함을 일깨워준다. 모든 자연의 이치로 태어나는 생명은 세상의 어느 것 보다 강하며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독창적인 아트메이크업의 디자인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2) 작품제작과정

제작 과정으로는 첫째, 베이스 메이크업은 피부톤 보다 밝은 색상의 크림 화운데이션을 사용하고 T존과 Y존을 중심으로 2톤 밝은 커버 화운데이션을 발라 주었으며 피부표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블렌딩 파우더로 마무리 하였다.

둘째, 아이메이크업은 자연의 느낌을 주기위해 콧대 앞부분부터 연두색과 주황색 아이섀도우로 콧대를 살리고 아이홀 부분까지 세로기법으로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자연의 생동감을 연출하였으며 눈의 깊이감을 주기 위해 검정색 리퀴드 아이라인을 이용하여 라인을 그려주었다. 눈 꼬리부분부터는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순간을 주황색 라이닝 컬러와 초록색 라이닝 컬러로 연속적인 곡선 형태의 모티브를 그려 표현하였고, 그 위에 포인트로 색색의 종이를 오려붙여 스팅글의 느낌을 주었으며 아지랑이의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글리터를 사용 하였다.

셋째, 눈썹 앞부분과 콧대를 중심으로 자연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듯 한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초록색 나무 문양의 종이를 길게 잘라 연출하였다.

넷째, 치크는 주황색의 컴팩트 타입을 이용하여 턱선 부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여 노을 속에 피어나는 자연의 경관을 강조하였으며, 립 메이

크업 또한 치크와 통일감을 주기위해 주황색으로 입술을 돋보이게 하였다.

다섯째, 헤어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의 스폰지를 잘라 붙여 몽글몽글 피어나오는 새싹들의 느낌을 생동감 있게 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데꿀데 부분에는 직사각형의 나무판을 이용하여 페이스와 어울리는 컬러와 장식을 더해 나무위에 피어나는 새싹을 표현한 친환경적인 오브제를 제작하여 작품의 조형성을 더해 주었다.





[작품 5] Cantata



[작품 5-1] 컴퓨터그래픽 적용

제 4 장 결 론

조형예술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술적 특성과 새로운 표현기법을 통하여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작가의 의도에 의하여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아트메이크업 작품 활동에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아트메이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조형 예술적 가치에 따라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이어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디자인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예술적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주의적 꼴라주의 특징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형성 중에서 종이와 가진 조형적 가치 위주의 파피에 꼴레 기법을 연구하여 현대적 감각의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을 적용한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꼴라주는 초기 입체파 화가들이 주로 사용하였던 파피에 꼴레 기법을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표현 기법과 창작 활동으로 이어져 최근 아트메이크업에 접목되어 분야나 영역을 넘어선 예술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20세기 현대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입체주의의 주된 표현기법인 꼴라주의 발전 이면에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노력이 있었다. 이들은 초기 실재의 종이를 화면에 부착하거나 다른 재료를 이용한 파피에 꼴레 기법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이 후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시대가 오면서 다양한 표현기법들이 등장하고 이질적인 요소를 화면이나 표현영역에 결합하여 창의적인 예술적 조형과정을 형성하였다.

이에 미술사조에 따라 나타난 꼴라주의 표현적 특성을 선행연구와 참고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입체주의의 표현기법으로 파피에 꼴레를, 다다이즘의 표현기법으로 파타가가 꼴라주, 메르츠 꼴라주, 포토몽타주로,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으로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데페이즈망, 앳쌍블라주 등의 표현기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중 입체주의와 그의 주된 꼴라주 기법인 파피에 꼴레 기법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입체주의적 꼴라주의 특성을 응용한 파피에 꼴레 기법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꼴라주는 사물의 고정관념에 벗어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아트메이크업에 접목시킴으로서 하나의 조형예술문화로 표현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꼴라주 중 종이를 붙이는 의미인 파피에 콜레 기법은 화면의 현실적 회복의 한 수단으로서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공간적 깊이감과 질감을 강조하여 평범한 디자인에 조형성을 창조하고 있다.

셋째, 꼴라주의 시초인 파피에 콜레는 여러 가지 종이조각들의 형태와 색채로 1차적 평면에서 잃어버린 입체감을 회복시켜주고 추상적인 세계를 넘어 아트메이크업 디자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리얼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파피에 콜레 기법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은 아트와 메이크업이라는 단순한 미적인 범위를 벗어나 소재를 통한 예술적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아티스트에게 창의성과 표현력을 부여함은 물론 작품 능력 확장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파피에 콜레 기법 이외에 역사적으로 전개 되어온 미술사조에 따른 다양한 꼴라주의 표현기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작품 제작에 활용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꼴라주의 표현기법과 재료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주관적 미감표현이라는 아트메이크업의 의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이 확대되기를 바라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영희, 김효정, 류지원, 박미경, 박정신, 서란숙, 황선순(2001), 『토텔메이크업』, 서울 : 정문각
- 김옥진, 박재원(2004), 『광주비엔날레도록』, 광주 : 광주광역시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2003), 『20C의 미술』, 서울 : 예경
- 미디어문화교육연구회(2005), 『문화콘텐츠학의 탄생』, 서울 : 다할미디어
- 박갑영(2004), 『청소년을 위한 서양미술사』, 서울 : 두리미디어
- 오광수(1991), 『한국 현대 미술사』, 서울 : 열화당
- 오광수(1995), 『서양 근대 회화사』, 서울 : 일지사
- 현대미술용어사전(1981), 『계간미술편』, 서울 : 중앙일보사
- 한석우(1994), 『입체조형』, 서울 : 미진사
- Hans Richter, 김채현 역(1985), 『다다』, 서울 : 미진사

2. 국외문헌

- Dyett, L(1983), 『*Art to Wear*』, American Craft
- Farrell-Beck, J. & Petsch, J. V.(1984), 『*Colored Compare: Matisse & Picasso With Chanel and Vionnet*』, H. E. R. J, vol.13

3. 학위논문

- 강명주(2008), 「눈 화장에 따른 형태 변화와 이미지연구 : 20대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지(2004), 「아르누보 문양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1), 「해체주의적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꼴라쥬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지현(2007), 「입체주의 양식을 활용한 자화상 연구」, 국민대학교 교배
- 배기혜(2009), 「사군자를 응용한 바디페인팅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정훈(1994), 「피카소의 입체주의에 대한 연구 : 회화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주(1992),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조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영숙(2010), 「실 소재를 응용한 접시 문양 제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진경(2009), 「입체주의 조형양식을 통한 인체 도자 조형연구」, 이화여
- 이금란(1992), 「현대인의 소외현상에 관한 시각적 표현 : deformation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2000), 「패션에 장식요소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계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2007), 「그로테스크 적으로 표현된 아트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규(1985), 「꼴라쥬의 전개와 그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숙(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희(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진영(2002), 「벨기에 패션 디자인의 반미학적특성에 관한 연구 : 앤트워프 6인방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애경(2002), 「韓國 傳統紋樣에 나타난 造形성과 象徵性 研究 : 植物紋樣을 中心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학술지

김미림, 최희자(2010), 「UV라이팅에 나타난 바디페인팅 시각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지』 Vol.11 No.2, 한국콘텐츠학회
김지희(1995), 「현대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가톨릭상지대학 논문집』 Vol.25, 가톨릭상지대학
곽지은(2009), 「현대 메이크업의 회화성 연구 -2004S/S~2010F/W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메이크업 디자인학회지』 Vol.5 No.3,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이춘섭(2006), 「입체주의 미술의 양식적 특성과 모더니즘 실내디자인과의 상관성,1,2」, 『백석대학교 진리논단』 Vol.13, 백석대학교

5. 단행본

산업자원부(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6.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cmcollection?Redirect=Log&logNo=130009020509>
<http://blog.naver.com/sunmi1519>
<http://blog.naver.com/wlsgk8670?Redirect=Log&logNo=100143488552>
<http://blog.naver.com/wlsgk8670?Redirect>
<http://blog.naver.com/fldrhwhdk?Redirect=Log&logNo=10016638379>
<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Log&logNo=110023798711>

<http://blog.naver.com/jycho75?Redirect=Log&logNo=130123927253>
<http://blog.naver.com/pey0927?Redirect=Log&logNo=110023798711>
<http://blog.naver.com/sotkfk0413>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http://blog.naver.com/sotkfk0413>
<http://blog.naver.com/art422?Redirect=Log&logNo=70116620210>
http://blog.naver.com/13610_?Redirect=Log&logNo=60132995596
<http://blog.naver.com/arcadium?Redirect=Log&logNo=80142518416>
<http://blog.naver.com/elldesign?Redirect=Log&logNo=20036876830>
<http://blog.naver.com/art422?Redirect=Log&logNo=70116620210>
<http://blog.naver.com/ckoe23?Redirect>
<http://blog.naver.com/ljeul?Redirect=Log&logNo=6012930790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es21c&logNo=50073763434&redirect=Dlog&widgetTypeCall>
<http://blog.naver.com/zmfog?Redirect=Log&logNo=90094939845>
<http://blog.naver.com/mansank?Redirect=Log&logNo=120083082674>
http://blog.naver.com/kor_kimpo?Redirect=Log&logNo=110115709027
<http://blog.naver.com/rkfaorltbrl?Redirect=Log&logNo=140670788>
<http://blog.naver.com/fla5557?Redirect=Log&logNo=20099417155>
<http://blog.naver.com/h3133712?Redirect=Log&logNo=130075943926>
<http://blog.naver.com/tttww2003?Redirect=Log&logNo=90039149920>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http://blog.naver.com/rain5647?Redirect=Log&logNo=120090433068>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http://blog.naver.com/jycho75?Redirect=Log&logNo=130123927253>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37044048>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http://blog.naver.com/rain5647?Redirect=Log&logNo=120090433068>

<http://blog.naver.com/mkuphighheel?Redirect=Log&logNo=100134650725>
<http://blog.naver.com/g10521052?Redirect=Log&logNo=40129208463>
<http://blog.naver.com/byeyouandme?Redirect=Log&logNo=100105163876>
<http://blog.naver.com/rain5647?Redirect=Log&logNo=120090433068>
http://blog.naver.com/alswl0303_?Redirect=Log&logNo=130123512899
<http://blog.naver.com/ssh3700?Redirect=Log&logNo=50122951766>
<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http://blog.naver.com/lake456?Redirect=Log&logNo=40120311406>
<http://cafe.daum.net/yangsu1212/5QYI/1>
http://cafe.naver.com/hanbatdesign.cafe?iframe_url
http://cafe.naver.com/mmbeauty.cafe?iframe_url
http://cafe.naver.com/mbeauty1011.cafe?iframe_url
http://cafe.naver.com/mbsschoo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
http://cafe.naver.com/herco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http://cafe.naver.com/bobbibrown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http://cafe.naver.com/scaubeautyar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37&
http://cafe.naver.com/makeupfs.cafe?iframe_url=/ArticleRead
<http://mrsoon.egloos.com/17061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65829>
http://www.myb612.co.kr/shop/bbs/board.php?bo_table=review&wr_id=56
<http://www.art2me.org/images-art/08-gamsang/08-20century/02-cubism/Braque/image013.html>
<http://www.aol.com>
<http://www.baidu.com>
<http://www.cyworld.com/bromise/5981581>

http://www.style.co.kr/vogue/trend/trend_view.asp?menu_id=02040400&c_idx=010201010000929

http://www.style.co.kr/beauty/b_view.asp?m



ABSTRACT

The study artmakeup apply a collage peculiarity of cubism

-centered on papier colle-

Lee, Gyu Ri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Modern artmakeup should change as a value system of individuals and groups are diversifying liberalization as artistic expression of modern man's desire to change. In addition, it has been tried in a new way. And the emergence of fashion techniques is accelerating. Among them artmakeup a collage utilizing beyond the framework to visualize the image into the field of plastic arts. It is through the use of unconventional materials and techniques, that values and transcend practices the traditional avant-garde approach will attempt to represent other things. So it suggests new possibilities. It's the artmakeup of the artistic side moldings are giving to the transformation and transition.

Collage is early Cubist painters who used papier colle techniques represent a wider variety of techniques and begin to lead to creative activities. It has recently been incorporated into artmakeup is

represented by the artistry elements. Papier colle technique using paper as annex pulls into the world of three-dimensional flat paintings. It break the limited representation material of the stereotype. It's a new birth into a work of art in the form of plastic materials and in accordance with the will is a technique that converts a wide representation. Thus, in the familiar stereotypes by changing our perspective to be reinterpreted in a new light artmakeup and similarities can point to. Plastic arts by bringing them together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artistic look that is meaningless.

Research method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references the definition of collage and collage techniqu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art history will be considered. The cubism and technique of papier colle collage technique, were studied. Makeup a collage based on it appeared in the cas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material analyzed.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cubism collage and papier colle application of techniques and creative work has produced five.

First, a collage of things beyond the common stereotypes which are available and artmakeup gives new meaning to the material incorporated into the culture of Plastic arts represented by one of the limitless possibilities that you can see that.

Second, that means attaching a paper collage of papier colle technique as a means of recovery of the screen real easily accessible in everyday life and highlights the spatial depth and texture to a plain design, sculpting and much more availability.

Third, papier colle shape and color of a piece of paper with the primary dimension in the plane to restore to lost cubic effect world beyond the abstract and artmakeup design with creative ideas and reality shows.

Like this papierer colle technique of applying artmakeup and makeup

art is beyond the scope of mere aesthetic artistic expression through a wide variety of materials available, and give expression to the artist as well as the creativity and ability to work is to enable the extension.

Through research, in addition to the limitations include papier colle techniques that have been historically deployed a variety of art history according to the expression of collage techniques, or more specifically, the study did not utilize to create their own work of art that remains disappointing.

Through this study, the expression of a variety of collage techniques and material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timeless representation of subjective beauty, artmakeup to realize the significance of expanding the possibilities of developing new designs hope that through creative activities, I hope ongoing research is done.



【Correspondence】 Artmakeup, Collage, Cubism, Papier colle, Plastic arts, Makeup representation techniques, Makeup design